

석사학위논문

초등 미술 관화교육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박성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고난향

2002년 8월

초등 미술 관화교육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박 성 진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2년 6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제출자 고 난 향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고난향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02년 7월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초록>

초등 미술 관화교육에 관한 연구

고 난 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지도교수 박 성 진

관화는 독특한 기법에 의한 표현을 통하여 조형 감각과 창의력을 길러주고 과학적 사고를 하게 함으로써 지성과 감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토대로 종합적인 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미술영역이다.

본 연구는 초등 미술에 있어서 관화교육의 교육적 의의와 관화의 개념 및 특성, 원리를 문헌을 통하여 알아보고, 초등학교 관화 지도의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바람직한 관화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통계조사 분석 자료는 제주도 초등학교 4·5·6학년 어린이 43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고, 자료처리는 통계처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들이 관화에 대한 흥미는 높은 반면, 다양한 표현방식을 가진 관화의 특성을 살릴만한 교육의 장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기존의 그리기 중심적인 미술교육을 답습하기 때문에 교사를 비롯한 교육현장에서 관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극히 부족하다.

셋째, 관화교육의 연계지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지도시간도 부족하다.

넷째, 관화교육 활동을 위한 교구 및 시설의 부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관화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상의 분석 내용을 토대로 초등 관화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본 논문은 2002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첫째, 단순한 판화활동으로 판화의 기능을 제한 시켜 온 기존의 판화교육에서 탈피해 판화의 다양한 표현기법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그리기 중심의 교육으로 미술에 흥미를 잃은 어린이들에게 또 다른 미술교육의 대안으로써 판화교육이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교사는 전문성 있는 연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셋째, 판화의 교육적 효과인 조형감과 창의성을 기르기 위하여 어린이들의 표현욕구를 체계화 할 수 있는 지도 시간의 확충과 학년간의 연계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판화가 가진 교육적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전문성을 지닌 미술 전담교사 배치가 시급하다.

다섯째, 판화교육에 필요한 교구를 구비하여야 하고, 미술실이 확보되도록 행정적인 배려가 우선 되어야 한다.

여섯째, 내실 있는 판화교육을 위해서 교사의 교재연구 시간 확보 및 잡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일곱째, 판화수업은 안정성이 요구되는 활동이므로 학부모 보조교사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과 같이 바람직한 판화교육을 위해서는 교사의 연수 실시 및 판화작업을 위한 최적의 환경조성, 지도시간 확충과 학년 간 연계지도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로써 그림 그리기에 자신이 없거나 흥미를 잃은 어린이들에게 판화의 다양한 기법을 통해 미술교육에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표현 의욕을 고취시켜서 감성과 지성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고, 더 나아가 전인교육의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목 차

| | |
|--------------------------|----|
| I. 서 론 | 1 |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
| 2. 연구의 방법 | 2 |
| II. 이론적 배경 | 5 |
| 1. 관화의 교육적 의의 | 5 |
| 2. 관화의 개념과 특성 | 9 |
| 3. 관화의 원리 종류 | 12 |
| III. 관화교육의 지도 실태 | 19 |
| 1. 관화교육의 내용 | 19 |
| 2. 관화지도 실태 조사 및 분석 | 27 |
| IV. 결 론 | 51 |
| 참고문헌 | 53 |
| Abstract | 55 |
| (부록) 설문지 | 58 |

표 목 차

| | |
|---------------------------------------|----|
|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3 |
| <표 2> 설문지의 구성 내용 | 4 |
| <표 3> 관화교육 내용의 발전 체계 | 19 |
| <표 4> 연간 지도 계획 시간 배당에 따른 제재별 비중 | 20 |
| <표 5> 학년별 내용 체계 | 22 |
| <표 6> 미술과 교육과정에 의한 관화지도 교재 분석 | 23 |
| <표 7> 관화 표현의 성격 심상 | 25 |
| <표 8> 다색 고무 관화 수업안 | 26 |
| <표 9> 미술시간에 대한 느낌 | 28 |
| <표 10> 미술시간이 재미있는 이유 | 29 |
| <표 11> 미술시간이 재미없는 이유 | 30 |
| <표 12> 희망하는 주당 미술시간 | 30 |
| <표 13> 미술시간에 가장 많이 경험한 분야 | 31 |
| <표 14> 관화 수업에 대한 흥미도 | 32 |
| <표 15> 관화 수업 지도 방식 | 33 |
| <표 16> 가장 재미있는 관화 분야 | 35 |
| <표 17> 다색관화에서 판 사용 수 | 36 |
| <표 18> 다른 미술시간과 비교 시 관화시간의 흥미도 | 37 |
| <표 19> 관화 방법 인지 정도 | 38 |
| <표 20> 관화에 대한 관심 | 39 |
| <표 21> 관화 수업 소재 결정 방법 | 40 |
| <표 22> 관화시간 중 가장 어려운 점 | 41 |
| <표 23> 관화수업 이용 자료 | 42 |
| <표 24> 관화자료 입수의 용이성 | 43 |
| <표 25> 관화재료를 구하기 어려운 이유 | 44 |
| <표 26> 관화의 일상생활 적용 여부 | 45 |
| <표 27> 관화가 사용된 예 | 46 |
| <표 28> 관화 수업을 통한 개인발전 | 47 |
| <표 29> 학교 미술실 유무 | 49 |
| <표 30> 관화 수업에 대한 의견 | 50 |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어린이의 미술활동은 언어적 이미지와 시각적 이미지를 구체화하여 내면세계를 반영하는 영역으로 이 과정을 통해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과 자아실현에 중요한 토대가 되는 교육활동이다.

미술 교과 교육은 ‘다양한 미술활동을 통하여 주변세계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향유할 수 있는 심미적인 태도와 상상력, 창의성, 비판적인 사고력을 길러주고, 아울러 미술 문화를 이해하여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인적 인간을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¹⁾고 명시되어 있다.

미술교육에서 조형성의 발달은 미의식을 심화·증대시키고 미적 감동과 기쁨을 느끼게 하며, 미적인 것에 반응하는 정서를 지니게 하여 전인적인 인간으로 이끌게 한다. 조형 영역의 하나인 판화는 입체성과 평면성에 대한 조형 감각과 창의력을 길러주고 과학적 사고를 하게 함으로써 지성과 감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가능하게 하므로 종합적인 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판화영역은 회화성에 바탕을 둔 조형활동이라는 종합예술의 차원으로서 어린이들에게 공감각적(共感覺的)인 사고의 유연성을 갖게 하여 창의력을 향상시키고 특히, 작업과정에서 어린이들이 흥미로워 할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림에 자신이 없거나 그리기에 흥미를 잃은 어린이들에게 또 다른 미술교육에의 대안으로서 그 교육적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조형적인 체험과 함께 치밀한 계획성, 종합적인 판단력, 집중력, 문제해결 능력 등을 기를 수 있는 특징이 있으며, 제작과정에서 인내력과 협동심을 길러줌으로써 미술 교육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전인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판화가 가지

1) 교육부(2001), 「미술 3 교사용 지도서」, 대한교과서주식회사, p.6.

는 비중은 높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최근 ‘생활 속의 관화’를 표방하며 쏟아지고 있는 수많은 관화예술품, 일용품들을 접할 기회가 많아졌지만, 여전히 교육현장에서는 그리기 중심의 미술교육만을 답습하여 관화교육은 오랫동안 소외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초등 학교 교육현장에서는 관화 작품을 접할 기회가 적고, 표현 활동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이 구비되지 않아 관화 학습지도에 불편이 따르며, 관화에 대한 교사의 관심이 다른 미술 분야에 비하여 극히 낮은 형편이다. 또한 학습 준비 과정이 복잡하고, 교사의 전문 소양이 부족함 등으로 인하여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미적 감성을 키우는 관화교육에 저해 요인 되고 있다.

본 논문은 초등학교 관화학습의 교육적 의의를 문헌을 통하여 알아보고, 관화지도의 실태를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여, 관화교육의 문제되는 요인들을 찾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탐색하여, 바람직한 관화지도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초등학교 미술교육의 바람직한 관화교육을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개선방안은 무엇인가를 모색해보는 기초적인 단계로서 관화교육의 교육적 의의 및 개념과 특성, 원리와 종류에 대하여 참고문헌과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탐색하고, 설문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관화교육의 지도 실태를 통해 가장 효과적인 관화지도의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구 분 | | 빈도(명) | 백분율(%) |
|-----|-----|-------|--------|
| 학년 | 4학년 | 154 | 35.2 |
| | 5학년 | 89 | 20.3 |
| | 6학년 | 195 | 44.5 |
| 성별 | 남 | 227 | 51.8 |
| | 여 | 211 | 48.2 |
| 계 | | 438 | 100.0 |

학년별로는 6학년 어린이가 44.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학년 35.2%, 5학년 20.3%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어린이가 51.8%, 여자어린이가 48.2%로 비교적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2) 자료의 처리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²⁾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미술수업에 대한 흥미도와 관화수업 지도 실태와 그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χ^2 (Chi-square)³⁾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유의도 수준은 $p < .05$, $p < .01$, $p < .001$ 세 가지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2) SPSS프로그램 : 통계처리프로그램

3) 교차분석(χ^2 Chi-square) : 두 개 이상의 범주형 변수들 사이의 상호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할 때 이용된다. 교차분석에서 이용되는 통계량은 χ^2 (Chi-square)로써 이는 기대빈도와 실제빈도간의 차이에 의해서 계산되는데 이 때문에 일명 ' χ^2 (Chi-square) 분석'이라고도 한다.

3) 연구의 제한점

- (1) 연구의 조사 대상은 제주시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다.
- (2) 연구의 대상은 초등학교 3~6학년으로 한다.
- (3) 본 연구는 제7차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을 근거로 한다.

<표 2> 설문지의 구성 내용

| 구 성 | 설 문 내 용 | 문항 번호 |
|----------------|--------------------------|-------|
| 미술에 대한 흥미도 | 미술 시간에 대한 느낌 | 1 |
| | 미술 시간이 재미있는 이유 | 2 |
| | 미술 시간이 재미 없는 경우 | 3 |
| | 희망하는 주당 미술시간 | 4 |
| | 미술시간에 많이 경험한 분야 | 5 |
| 관화수업의 지도 실태 | 관화에 대한 흥미도 | 6 |
| | 관화수업 지도 방식 | 7 |
| | 가장 재미있는 관화 분야 | 8 |
| | 다색 관화에서 판의 사용 수 | 9 |
| | 다른 미술 분야와 비교 시 관화시간의 흥미도 | 10 |
| | 관화의 방법 이해 정도 | 11 |
| | 관화에 대한 관심 | 12 |
| | 관화 소재 결정 방법 | 13 |
| | 관화 수업 중 어려운 점 | 14 |
| | 관화 수업 시 활용 자료 | 15 |
| | 관화 재료 입수의 용이점 | 16 |
| | 관화재료를 구하기 어려운 이유 | 17 |
| | 관화의 일상생활 적용 여부 | 18 |
| | 관화가 사용된 예 | 19 |
| | 관화수업을 통한 개인 발전 | 20 |
| | 학교 미술실 유무 | 21 |
| | 관화 수업에 대한 의견 | 22 |

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초등학교 미술교육에서 관화교육의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관화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관화교육의 교육적인 의의(意義)와 관화의 개념과 특성 및 원리와 종류를 선행 연구와 참고문헌을 통해 탐색하여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1. 관화의 교육적 의의

멀티미디어 시대를 살아가야 할 어린이들에게 중요한 능력 중의 하나는 모방보다는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창의력이다. 어린이들의 관화교육은 다양한 표현 방식과 독창성을 바탕으로 전개되는 만큼 창조적인 표현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관화의 교육적 의미는 첫째, 본능적 표현욕구를 충족시킨다. 둘째, 노작적(勞作的) 사고 활동이 이루어진다. 셋째, 자발적인 흥미 유발을 일으킨다. 넷째, 집중력이 길러진다. 다섯째, 표현 의욕과 표현 능력을 길러준다. 여섯째, 복수성을 특징으로 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⁴⁾

어린이들은 새로운 학습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관화의 다양한 기법과 재료, 새로운 표현 양식에서 많은 흥미 유발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학습이 이루어진다. 관화를 통한 관화의 느낌이나 특색을 알게 하고 효과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체험을 갖도록 지도한다면 다른 영역에서 얻지 못하는 교육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관화는 미술의 다른 영역에 비해 재료와 방법이 다양함에서 오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지도 방법이나 교육적인 면에서 다음과 같은 능력이나 태도를 키울 수 있다.

4) 김삼량(1992), 「미술 교육 개론」, 미진사, P.234.

첫째, 계획성이 길러진다. 둘째, 창의성을 길러준다.

셋째, 인내력을 길러준다. 넷째, 정신 집중력이 길러진다.

다섯째, 협동성을 길러준다. 여섯째, 표현 의욕과 표현 능력을 높여 준다.⁵⁾

판화는 제판에서 완성에 이르기까지 만드는 방법이 단계적이므로 순서를 지켜야 한다. 제작 순서가 바뀌거나 중간 과정이 생략되면 작품이 완성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판화를 만들기까지의 순서를 하나 하나 확인하면서 작업하는 가운데 계획성이 길러진다.

판화는 파내거나 잘라내면서 형을 남기는 것이 많이 있다. 흑백의 조화를 위해서 ‘어디를 남기느냐?’ ‘어디를 파느냐?’하는 것 중의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형태뿐 아니라 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판화는 판을 만드는 과정과 찍는 과정에 있어서 ‘우연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어린이들의 이미지를 불러 일으켜 창의성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교육적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어린이들은 판화의 복잡한 과정을 경험하는 동안 인내심을 기를 수 있다. 판을 만드는 작업이나 찍는 과정은 매우 어려운 노동이며, 육체적 정신적인 저항에 부딪힌다. 그러나, 작품을 만드는 단계를 차례로 밟아가다 보면 서서히 운곽이 잡히는 완성품을 발견 할 수 있고, 이 인내의 과정을 통해 비로소 진정한 창작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이다.

판화는 제작 과정에서 충분한 이해와 조심성이 요구된다. 아름다운 것을 만들기 위하여 즐겁게 작업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긴장해서 일하지 않으면 안된다. 판화를 경험한 어린이는 경험하지 않은 어린이에 비해서 계획성 있게 생각하고, 작업에 집중하는 태도가 몸에 배어 집중력이 길러진다.

판화에서의 협동 작업은 분할과 구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작업하기가 용이하다. 협동 작업은 큰 화면을 만드는 목적보다는 협동심을 기르는 데에 목적을 두어 지도해야 제작 과정에서 협동심이 길러진다.

형태가 마음 먹은대로 되지 않거나 또는 지금까지 사용해온 재료에 싫증을 느

5) 김춘일·김성혜(1997), 「어린이 판화교실」, 미진사, p.15.

켜 그리기를 싫어하고 표현에 자신을 잃은 어린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어린이들에게 판화를 지도한 결과 표현에 흥미와 의욕을 갖게 되었고 표현 능력도 향상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판이라는 특수한 표현 재료와 새기거나 찍는다는 작업으로 표현 방법을 바꾸어 줌으로써 일어나는 변화인 것이다. 어린이들은 그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으로써 단순히 그린다는 일만으로는 만족하지 않고 새기고, 깎고, 파고, 찍고, 누르고 문지르는 등의 다양하고 활발한 활동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판화는 교육적으로 미술과의 특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른 제재와의 차이에서 오는 특수성 즉, 재료나 기법의 다양성에 의하여, 계획성과 인내성 및 집중력, 생활과의 연관성 등의 많은 인격 형성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⁶⁾

로웬펠드(Victor Lowenfeld)와 브리테인(W. Lambert Brittain)은 '9세부터 11세에 해당되는 초등학교 3~6학년 시기를, 사실 표현의 시작하는 단계로서, 이 시기에는 환경에 대한 인식과 감수성이 크게 발달하면서 사물을 보는 방식이 주관에서 객관적인 사실로 넘어가기 시작하므로 익숙하지 않은 재료에 의해서 독창성과 창의적 사고를 기를 수 있다'⁷⁾고 그의 저서에 쓰여있다.

관련이 없어 보이는 대상이라도 동기 유발을 통해서 연관성을 발견하도록 도와 줄 때 미술에 더욱 더 흥미를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초등학교 9세부터 11세의 어린이들은 객관적 표현에 눈을 돌리는 시기이므로 객관적 표현력을 중시하는 수업을 지속할 때 미술에 대한 흥미를 잃기 쉽다. 그러므로 새로운 제재로 눈을 돌려 사고력, 문제 해결력 등의 발달을 촉진하고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미술 활동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 시기의 어린이들에게는 볼록판화, 오목판화, 평판화, 공판화 등의 고전적인 판화기법을 지도함으로써 색다른 표현 재료의 탐구를 통하여 물건에 대한 응용 능력을 갖게 하고, 판을 제작하는 과정을 거치는 동안, 자연스럽게 지적인 동기를 유발하여 탐구의 태도를 갖게 한다.

판화교육의 통합적인 교육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여러 영역의 특성을 종합하고 있는 종합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박주영 외 3인(1991), 「미술 교육」, 형설출판사, P.89.

7) 로웬펠드·브리테인(1993), 「인간을 위한 미술교육」, 미진사, PP.331~332.

첫째는 판을 만들기 위해서 판 이전에 밑그림을 위한 그림을 그리고, 판에 옮겨 그리는 과정에서 회화적인 조형 감각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둘째는 제한된 판 위에 주제를 간결하고 조화 있게 배열하고 구성하는 디자인적인 감각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셋째는 판을 부식하거나 깎는 과정에서 판 면의 입체감, 양감 등을 체득하는 조소적인 감각을 길러준다는 점이다.

넷째는 판을 다듬고 깎는 과정에서 장인 기질과도 같은 인내와 끈기를 길러주는 공예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는 지판화나 탁본 등의 기법을 통하여 사물의 재질감, 촉감, 특성 등 대상의 물성(物性)을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으므로 자연 감각적이며 촉각적인 감각을 발전시켜 줄 수가 있으며, 사물에 대한 명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⁸⁾

판화는 밑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회화 감각이 길러지고 구성하는 과정에서 디자인 감각을 길러주므로 미적 안목을 높일 수 있다. 또한 판을 만드는 과정에서 조소적인 감각과 공예성이 길러지고 사물에 대한 명상적 사고를 할 수 있어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을 할 수 있다. 아울러 다양한 재료와 색다른 경험으로 그리기에 자신이 없거나 싫증을 느끼는 어린이들에게 미술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얻게하여 교육적인 의의가 매우 크다.

허버드 리드(Herbert. Read)는 교육의 목적이 인간의 개성 발달을 유도하고, 그 개성은 그가 속한 사회와 조화시키는 데 있으며, 심미적인 교육이 교육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실제로 미술은 어떤 지각할 수 있는 대상이나 작품, 자료, 환경 등에 대한 느낌을 조형 활동과 더불어 감상활동을 통하여 아름다움을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조형 감각과 더불어 시각적 사고력과 상상력 그리고 창의력을 키우고, 어린이의 정서를 안정되게 하고 순화시키며, 좀 더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태도와 감정을 길러 주는 기능을 한다.⁹⁾

미술은 어린이의 창의력과 정서에 가장 순수하게 맞닿아 있으며, 바람직한 미술 교육의 실현은 전인 교육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8) 김삼량(1992), 「미술교육 개론」, 미진사, P.233.

9) 김춘일·김성혜(1997), 「어린이 판화교실」, 미진사, p.17.

2. 판화의 개념과 특성

1) 판화의 개념

오늘날의 판화는 예술가의 조형언어를 담기 위한 독립된 표현 형태로서 독자적인 예술 영역이다. 판화의 시원(始原)은 선사시대에 진흙을 이겨서 어떤 형태를 만들어 찍어낸다면, 원시인들이 의사 전달의 수단으로 바위 표면이나 동굴에 선을 새겨 표현하는 정도의 원시적인 형태에서 근간(根幹)을 찾아 볼 수 있다. 미술의 역사는 동서를 막론하고 종교 미술에 의하여 주도되어 왔는데, 중세에는 종교적인 내용을 포교하려는 취지에서 인쇄술이 발달하기 시작하였다.¹⁰⁾

당시의 대다수 평민들은 무지하여 경전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려운 말들을 풀어서 글을 만들고 그림을 그렸으며, 여기서 대량으로 필요한 불경을 사경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고안된 것이 인쇄술이다. 이 후 글을 모르는 평민들에게 종교적인 내용을 포교한다면, 교육을 목적으로 주제에 부합하는 그림을 그려서 전파하려는 목적으로 동양에서는 경전에, 서양에서는 트럼프 카드에 인쇄를 하던 것에서 판화의 기원을 살펴 볼 수 있다.¹¹⁾

우리 나라와 중국은 목판의 주조와 종이의 발명에서 서양보다 훨씬 앞서 있다. 우리 나라에서 최초의 인쇄술은 신라에서 시작되었고,¹²⁾ 인쇄 문화는 고려시대에 그 꽃을 피웠는데 당시 해인사에서 간행되었고 팔만대장경 안에 수록된 80화엄변상도는 화엄경 80권의 내용을 40개의 목판 양면에 변상하여 조각한 것으로서, 독자적인 표현 양식에 의해 조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 만들어진 최대규모의 판화이다.¹³⁾

우리 나라에서의 판화는 1950년대 이전에는 거의 목판에 의해서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유로 과거에는 판화를 판화(板畵)로 표기하였고 그리고

10) 「철학대사전」(1964), 동아출판사, p.1001.

11) Fritz Eichenberg, p.70.

12) 이종갑(1986), “고려 목판화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p.6.

13) 홍재연(1981), “고려판화의 연구”, 한국미술교육학회, p.61.

근·현대에 들어와 여러 가지 새로운 인쇄방법이 발명되고 국내에 유입되면서 나무뿐만 아니라 실크판, 금속판, 합성수지판 등의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작품을 제작하게 되면서 현재는 판화(版畵)로 표기되고 있다.

판화는 ‘그린다’거나, ‘만든다’는 방법보다는 이미지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여러 장으로 찍어 유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찍는다’고 하는 대량 복제의 수단으로 발달되어 가는 과정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등장한 것이다.¹⁴⁾

이상과 같이 판화는 선사시대에서 현대까지 인간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선사시대에는 의사 전달 수단으로 이용되었고, 중세에는 종교 전파 목적 등으로 이용되었다. 현대에는 생활 전반에 활용되고 있어 판화의 문화 속에서 살고 있음으로 교육 현장에서는 판화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효율적인 판화교육이 되도록 지도해야 한다.

2) 판화의 특성

판화의 특성에는 다양성과 복수성으로 크게 대별(大別)할 수 있다. 판화는 판에 의한 간접적인 평면작업과 입체작업의 면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소재라든가 기술, 판의 그림이란 제약이 적지 않으나 이런 제약(制約)을 역(逆)으로 잘 이용할 수 있다. 판을 물질 세계와 심상세계가 교감 조화(交感 調和)하는 공조판(共助版)이라고 규정할 때 이를 잘 활용하여 자기 표현력을 위한 방책으로 삼을 수 있는 예술이 판화라고 할 수 있다.¹⁵⁾

오늘날 확대된 판화의 개념은 각종 미디어의 발달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비단 판화영역에 한정된 것만은 아니다. 각종 예술 분야에서도 이러한 추세는 마찬가지이다. 초등교육과정 내에서도 이러한 새로운 미디어가 교구로써 활용될 뿐만 아니라 학습활동 내용으로 포함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판

14) 이미숙(1999), “바람직한 초등미술교육을 위한 판화영역의 분석과 판화의 지도방법 연구”, 한국미술학회, P.6.

15) 구득환(1985), “일반 미술교육에 있어서의 판화지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p.23.

화의 개념적인 확장은 고전적인 방법에 의한 판화와 새로운 미디어를 판화의 영역에 수용함으로써 미술 교과과정의 판화 영역에서도 창의성과 유연성을 살릴 수 있는, 보다 더 다양한 수업의 가능성을 예견하게 한다. 그러나 학습활동을 통하여 판화 본래의 개념, 원리, 특성에 대한 탐색적인 활동이 없는 판화수업은 판화로서의 의미는 물론이고 교육적 효과를 상실하기 쉽다.

일반적으로 어린이들은 매우 자유롭고 활동적이며 다양한 대상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으며, 적절한 자극과 동기부여를 해준다면 이 시기에 창의성과 개성이 계발된다. 그리고 11세에서 13세인 초등학교 고학년의 시기 이후에는 그들의 관심이 작업의 과정에서 완성된 작품으로 옮겨감으로써 자신의 그림을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어린이들에게 창의성 발달을 위해서 제대로 동기를 부여해주지 못한다면, 미술영역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잃기 쉽다. 따라서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재료와 색다른 체험을 경험하게 하여 미술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판화의 특성인 간접성, 계획성, 복수성과 잘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1) 간접성(間接性)

판화는 판을 만들어서 그것을 피 인쇄물에 찍어내는 예술이다. 그리고 압력에 의해 눌러 찍히는 까닭에 페인팅(Painting)과는 다른 고유의 화질(畫質)이 생기게 된다. 다시 말해서 판을 제작하여 찍음으로서 직접 그려서 표현할 수 없는 느낌, 즉 판 재료의 특성과 판각의 방법에 따라서 그리고 찍히는 원리에 따라서 독특한 느낌으로 나타난다.

(2) 계획성(計劃性)

판화는 기본적으로 적어도 3단계의 과정을 거쳐야만 작업이 완성된다. 즉 판을 제작하기에 앞서 밑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판에 옮겨 판의 제작 과정을 거치며, 잉크를 판에 올린 다음 종이에 찍는 3단계의 과정을 거쳐 완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치밀한 계획에 의해 세 가지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행했을 때 비로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3) 복수성(複數性)

판화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복수성이다. 판화는 판과 종이 가 분리되어 복수 제작이 가능하고 그로 인하여 경제적인 가격으로 여러 사람의 미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독특한 미술 분야이다.¹⁶⁾

판화의 간접성은 어린이들은 판화 영역을 경험해봄으로써, 판을 의식하여 밑그림을 그리고 판을 제작하고 찍는 과정에서 간접성에 따르는 판화만의 독특한 미감을 느껴보는 ‘색다른 미적 체험’을 할 수 있다. 판화 작업의 표현 결과는 예상하지 못했던 독특한 개성으로 나타나고, 감상을 통하여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재발견하는 과정을 통해서 완성된 결과에 대한 만족감을 맛보게 할 수 있다.

판화의 복수성은 아동기의 미술영역 중에서 ‘나눔의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 판화만의 장점이기도 하다. 판화작업 과정에서 가장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찍는 작업을 서로 협동하여 공동 제작한다면, 자기 세계와 더불어 서로의 세계에 참여하고 대화함으로써 공동체의식을 기를 수 있다. 그리고 복수 제작의 장점을 활용하여 작업이 완성된 후 결과물을 친구간에 서로 나누어 가질 수 있다 판화는 넓은 의미에서 복제된 시각예술을 의미하지만 독자적인 하나의 순수한 예술 분야이다. 판화는 표현의 형식과 표현의 방법 그리고 표현의 효과면에 미의 독자성을 갖는다.

어린이들의 판화 표현은 복잡한 제작 과정과 판재, 재료, 용구, 찍는 도구 등에 의해서도 다양하고 창조적인 독특한 미를 갖고있어 표현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3. 판화의 원리와 종류

판화는 판이 찍히는 원리에 따라 기법을 분류하는 방법과 재료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 및 표현요소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 찍히는 판의 요철(凹凸) 원리에 따라 오목 판화, 볼록 판화, 평 판화, 공 판화, 등으로 구분할 수 있

16) 이미숙(1999), “바람직한 초등미술교육을 위한 판화영역의 분석과 판화지도 방법 연구”, 한국미술학회. pp.10~11.

다. 재료의 특성에 따라 동판화, 석판화, 실크스크린, 지판화, 목판화, 고무판화, 등으로 분류되며, 일반적으로 판화는 원리에 따라 기법을 구분하고 다시 판의 재료에 따라 구분을 하는 방법이 판화영역의 기초적인 원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분류 방법에 따라 볼록 판화, 오목 판화, 평 판화, 공 판화 등 네 가지의 원리에 따라 기법을 분류하고, 판화 영역에서 초등 교과 과정에서 제작의 방법에 의하여 판화의 종류를 크게 나누어 보면 누르기 판화, 찍어내기 판화, 옮겨내기 판화, 문질러내기 판화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어린이들의 수준에 맞고 흥미로울만한 기법들을 원리에 의하여 종합하였다.

치밀한 계획성을 요구하는 판화의 특성은, ‘감성을 지성으로 바꾸어 주는 우뇌 중심의 명상을 통한 학습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시각적 사고력을 신장시키는데 유효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성취동기를 자극하여 더 다양한 미적 체험의 기회가 될 수 있다.’¹⁷⁾고 한다.

판화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성실한 자세를 길러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밑그림, 판 만들기, 찍기 등의 세 가지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판화영역의 단계적인 과정을 치밀하게 계획해 보고, 작업의 진행을 통해 탐색함으로써, 작업의 전 과정을 하나의 놀이 형태로 간주할 수 있게 되므로 집중하여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계획성이 필요한 판화의 작업 과정은, 인쇄 과정에 대한 기대감과 결과에 대한 성취감 그리고 새로운 매체에 대한 탐구의 즐거움 등을 동시에 느낄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있다.

1) 볼록 판화 (Relief)

(1) 원리 및 찍는 방법 - 볼록 판화(凸)는 말 그대로 평평한 판에서 파내고 남은 볼록하게 돌출한 부분에 잉크를 올려서 찍는 판 법을 말한다. 자기가 원하는 형태를 남겨 놓고 필요 없는 부분을 칼로 깎아 내는 양각으로 제작하거나, 역으로 자기가 원하는 형태를 칼로 깎아낸 후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에 잉크를 올려 찍어내는 음각기법이 있다.

17) 이덕호(1994), “시각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판화지도 방안”, 한국초등미술학회. p.14.

(2) 특징 - 볼록 판화는 판을 조각함으로써 낼 수 있는 칼 맛의 멋스러움과 특유의 단백하고 명쾌한 흑백 대비효과 등의 특징을 살릴 수 있다.

2) 오목판화 (Intaglio)

(1) 원리 및 찍는 방법 - 오목판화는 말 그대로 오목한 부분에 잉크를 집어넣고 찍는 판법을 말한다. 자기가 원하는 상(象)을 뾰족한 도구로 판에서 어느 정도 깊이로 파거나 화학적인 방법으로 요철을 만들어 낸 다음, 오목한 부분에 잉크를 집어넣고 표면에 있는 잉크를 잘 닦은 후에, 종이를 물에 축여 동판 프레스의 압력을 이용하여 찍는다.

(2) 특징 - 오목판화는 금속판에 날카로운 도구나 부식 방법에 의해 작업이 되므로 표현기법이 다양하고, 정밀한 묘사가 가능하며 화학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유연적인 표현도 가능하다. 섬세하게 판각된 요철이 강한 압력에 의해 눌러 찍히는 까닭에 선이 찍힌 부분의 종이가 약간 도드라지며, 찍은 후에 종이에 판 자국이 남는다.

3) 평 판화 (Planograph)

(1) 원리 및 찍는 방법 - 평판은 평면상에 물과 기름이 서로 배척하는 성질을 이용하여 드로잉 된 부분에만 잉크가 올라가게 하여 석판 프레스로 찍어내는 기법이다.

(2) 특징 - 모든 판화기법이 간접표현인데 반해서 석판은 찍혀 나오는 모습 그대로를 판 위에 자유롭게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간접표현이면서도 가장 회화와 근접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4) 공판화 (Stencil)

(1) 원리 및 찍는 방법 - 스텐실(stencil)은 그리고 싶은 모양을 오려 내거나 차단하여 판 면에 뚫린 구멍으로 잉크를 밀어 넣음으로써, 막힌 부분은 종이 그대로 남고 뚫린 부분만 잉크가 새어나가 종이에 찍히도록 하는 기법이다. 대표하는 기법으로는 실크스크린(silk screen)과 세리그래프(serigraph)가 있다.

실크스크린이나 세리그래프는 초기에 판의 재질을 실크 천을 사용했던 데서 붙여진 명칭으로 요즘은 나일론천이나 폴리에스테르 등의 합성섬유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실크스크린은 판화작품 이외에도 상품포장, 그 밖의 의류상품, 광고, 등에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상업적인 이름으로 사용됨으로 이와 구분하기 위해 예술적 창작판화의 명칭으로 세리그래프가 선호되고 있다.

(2) 특징 - 스텐실(stencil)은 재료와 용구가 간단하여 다른 작업에 비해 장소, 및 용구, 크기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작업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작업이 가능하다. 또한 판과 찍을 도구의 유연성으로 어떤 소재에나 찍는 것이 가능하고 수성과 유성잉크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구멍에 잉크를 밀어 넣는 방식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판의 좌우가 바뀌지 않는 유일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¹⁸⁾

블록 판화는 강한 압력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장비나 도구를 구하기가 용이하고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프레스가 없을 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인쇄 도구는 바렌과 손가락이다. 손가락은 큰 작품이나 많은 양의 판화를 찍어내기 어렵지만 어린이들에게는 매우 유연성이 있는 인쇄도구이다. 모든 종류의 블록 판화를 문질러서 찍을 수 있고, 다루기가 쉬우며, 압력을 부분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서 그림을 그리듯이 찍을 수 있어 어린이들에게 알맞은 판화 도구이다. 고무판화, 전각판화, 석고판화, 양각 지판화 등이 블록판화의 범주에 속하며, 이들은 판의 재료만 다를 뿐이고 작업 과정이 목판화와 거의 같다. 초등학교 교과과정에서는 다루기 용이한 종이판과 고무판을 이용하고 있다.

오목 판화(凹)는 다른 판(版) 종류에 비해 여러 가지 장비를 갖추어야 하고 작업 과정이 복잡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판을 다룰 줄 알아야 수업이 가능하다. 특히 오목한 부분에만 잉크를 집어넣어 찍는 과정은 다른 작업에 비해 유연성이 적고 까다로운 편이어서 작업의 경험이 없으면 지도하기 어렵다. 그러나 직접 판 법인 드라이 포인트(dry point)는 비교적 간단하여 초등에서도 지도가 가능하다.

18) 구자현(1989), 「판화」, 미진사, p.46.

초등 판화영역에서는 평판화의 원리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데칼코마니(decalsomanie), 마블링(marbling) 등이 다루어지고 있다. 이 기법들은 간단하게 물과 기름이 배척하는 원리만을 이용하여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부담 없이 간단하게 작업할 수 있다. 만일 어린이들에게 물과 기름이 서로 배척하는 원리를 이해하도록 한다면 어린이 스스로도 여러 가지 실험적인 과정에 깊이 열중하여 판화기법을 새롭게 응용해볼 수 있어 탐구태도 길러진다.

5) 기타 기법들

(1) 지판화(Collagraphy)

지판화는 판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잉크를 올리는 방법과 찍는 방법에 따라 기법의 원리가 오목판이 되기도 하고 볼록판이 되기도 한다. 때문에 명확히 볼록판의 범주에 넣기도 어렵고 오목판의 범주에 넣기도 어려운 점이 있지만, 찍는 원리에 따라 볼록 지판은 양각 지판화로, 오목 지판은 음각 지판화로 나눌 수 있다.

① 양각 지판화

저학년에서 지도되고 있는 대표적인 기법이다. 그림에 별 관심이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판을 만드는 과정이, 종이를 오려 붙이거나 여러 가지 재료를 배열하여 고착시키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므로 작업과정이 쉽고, 재료 사용이나 방법에 따른 유연성이 많아서 동기를 유발하기에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물체를 붙여서 표현하기 때문에 찍어보기 전에는 예측할 수 없고, 찍는 과정에서 재발견하는 즐거움이 크다. 판을 만드는 과정이 집중하기에 좋고, 흥미롭게 진행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수업을 한다. 이 기법은 판화와 관련된 장비가 거의 없을 때조차도 수업이 가능할 정도로 재료와 용구의 사용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② 음각 지판화(collagraphy)

판을 만드는 작업이 판 위에 질감이 있는 재료로 직접 그리거나, 긁거나, 가볍게 붙이는 등의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판의 제작과정이 양각 지판화 보다 평면적으로 제작되고, 판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양각 지판화와는 다

른 점이다. 찍는 방법은 동판화 찍는 과정과 비슷하게 잉크를 고르게 편 후 문질러 닦는 과정을 거쳐, 물에 불린 종이를 덮고, 동판 프레스로 찍는다. 동판프레스가 없을 경우에 음각 기법의 섬세한 효과를 기대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문제가 있지만, 한판에 여러 가지 색의 잉크를 문혀 다색 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찍을 때마다 다른 느낌으로 표현할 수 있다.

6) 제작 방법에 의한 판화의 종류

판화영역에서 ‘초등 교과 과정에서 제작의 방법에 의하여 판화의 종류를 크게 나누어 보면 누르기 판화, 찍어내기 판화, 옮겨내기 판화, 문질러내기 판화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¹⁹⁾

(1) 누르기 판화는 판화로 하는 재료가 작거나 또는 너무 부드럽던가 무를 경우에 택하는 것으로, 모두가凸판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지우개판, 감자판, 고구마판, 무판 등이 있는데 이 밖에 분(형)누르기에 사용되는 것으로 우리 주위 환경에서 볼 수 있는 자연물, 인공물 중에서 많이 찾아낼 수 있다.

① 종류 - 야채판화, 고구마나 감자를 이용한 판화, 나뭇잎을 프린트(Print)한 판화, 종이에 프린트한 판화, 종이끈을 이용한 판화. 종이접기 판화, 주위의 물체를 이용할 수 있는 누르기 판화 재료는 무수하다.

(2) 찍어내기 판화는 판으로 하는 것이 크고 튼튼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목판, 석고판, 종이판, 고무판 등에凸판으로 만들어 찍어내기, 또는 셀룰로이드(celluloid)나 비닐(vinil)로 하는 드라이포인트와 동판으로凹판을 만들어 찍기, 그리고 석판으로 이루어지는 평판 찍어내기가 있다.

① 종류 - 종이 판화, 석고판, 찰흙판, 목판, 고무판, 크레파스판, 나뭇잎, 실 등.

(3) 옮겨내기 판화는 찍어내기 판화와 같이 강한 힘을 들여서 찍지 않아도 될

19) 김남권(1995), “미술과에서 창의력 신장을 위한 판화 영역의 다양한 표현방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p.32.

수 있는 것으로써 모노타입(monotype), 데칼코마니(decalsomanie), 오프셋(offset)판 등을 말한다.

(4) 문질러내기 판화는 공판을 말하며, 디자인에서 많이 활용되고 염색이나 무늬 찍기 등에 많이 사용된다.

① 종류 - 스텐실, 핀 홀(pin hole), 마블링, 솔 이용한 판화.

이상과 같이 초등 미술의 판화영역이 갖고 있는 교육적 의미와 개념 및 특성, 종류를 초등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살펴보았다. 그리기에 자신이 없는 어린이와 표현 활동을 그리기 중심으로 지도됨으로 인하여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그리기에 흥미를 잃은 어린이들에게 색다른 표현 재료와 방법으로 흥미와 자신감을 얻을 수 있어 교육적 의미가 크다.

판화는 구상 단계에서 절제된 미를 추구하고 표현 단계에서는 인내심과 우연의 미를 발견하는 학습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효과와 더불어 미술의 전 분야를 경험해야함으로 인하여 종합적인 교육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미술영역이다. 그러므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판화지도의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바람직한 판화지도 방안을 모색하여 보다 효율적인 판화교육을 위한 방향을 제시해야 하겠다.

Ⅲ. 판화 교육의 지도 실태

1. 판화 교육의 내용

판화는 표현의 형식과 표현의 방법 그리고 표현의 효과면에 독창적인 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창의력과 종합력을 높일 수 있는 미술 영역이다. 창의성은 새로운 사고와 새로운 발견, 새로운 형태의 창조 등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발견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 판화는 제판에서 찍어내기까지의 과정이 종합적인 미적 조형활동이기 때문에 미술교육을 통한 창의력을 효과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다.

1) 판화 교육 내용의 발전 체계

현재 초등학교 미술 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판화 교육의 내용 체계를 살펴보면 <표 3>의 내용과 같다.

<표 3> 판화교육 내용의 발전 체계

| 학년 | 판화 표현 | 지 도 내 용 |
|----|--------|---|
| 3 | 종이판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 속의 경험을 다양한 방법으로 자유롭게 표현한다. · 판화의 특징을 이해하고 재료와 용구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
| 4 | 고무판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화의 여러 가지 특징을 이해한다. · 조각칼을 바르게 사용한다. · 판화의 특징을 살려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
| 5 | . | · 판화 내용이 없음 |
| 6 | 다색고무판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가지 판화에 관한 특징을 이해한다. · 다색 판화의 특징을 살려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 다색 판화의 제작 순서와 방법을 알고 찍어서 나타낸다. |

2) 관화교육 내용 발전 체계 분석

(1) 3·4학년은 점차 사실적인 묘사로 접어들면서 너무 대상에 충실하기보다는 점차 관화의 특성을 살리고 재료와 용구의 사용에 있어서 기본 기능을 익히며 주제의 특징을 살려 표현하도록 구성되어있다.

(2) 5학년은 관화지도 내용이 한 시간도 배정이 되지 않았다.

(3) 6학년은 어느 정도 재료와 용구에 익숙해지면서 관화의 특색을 살리도록 요구되고 있다. 어린이들이 재료와 다양한 표현 활동을 선택하여 활동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3) 연간지도계획 시간 배당에 따른 제재별 비중

미술과 연간 지도 내용 및 시간 배당에 따른 제재별 비중을 조사하여 관화 분야의 위치를 살펴보았다.

<표 4> 연간 지도 계획 시간 배당에 따른 제재별 비중 4학년

| 단 원 | 학 습 제 재 | 시간 배당 | 비율 |
|--------------|---|-------|-------|
| 1. 자연의 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의 색 알아보기 ◆ 자연의 색을 표현한 작품 감상하기 ■ 자연을 주제로 표현하기 ■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 | 4 | 6.25% |
| 2. 움직이는 선과 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가지 형과 선 찾아보기 ◆ 음악이나 소리를 듣고, 선으로 표현하기 ■ 움직임 표현하기 ■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 | 6 | 9.38% |
| 3. 상상의 세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에 나타나 있는 상상의 세계 감상하기 ■ 상상의 세계 표현하기 ■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 | 4 | 6.25% |

| 단 원 | 학 습 제 재 | 시간 배당 | 비율 |
|---------------|--|----------|-------|
| 4. 색의 느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슷한 색과 반대색 찾아보기 ◆ 여러 가지 모양 꾸미기 ▣ 느낌을 강조하여 나타내기 ■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 | 6 | 9.38% |
| 5. 판을 이용한 표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각칼의 쓰임새 알아보기 ▣ 고무판을 이용하여 표현하기 ■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 | 6 | 9.38% |
| 6. 판본체로 쓰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본체에 관하여 알아보기 ▣ 판본체로 '부모' 쓰기 ◆ 판본체로 '우리' 하루, '바다소리' '시내 호수' 쓰기 □ 판본체로 '바다 소리' '시내 호수' 쓰기 ■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 | 8 | 12.5% |
| 7. 조형의 아름다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 속의 미술에 관하여 알아보기 ▣ 미술 감상 자료집 만들기 ■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 | 2 | 3.13% |
| 8. 재미있는 표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미있는 표현 찾아보기 ▣ 여러 가지 재료와 방법으로 표현하기 ■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 | 6 | 9.38% |
| 9. 그릇 만들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가지 모양의 그릇 감상하기 ◆ 그릇 만드는 방법 알아보기 ▣ 여러 가지 모양의 그릇 만들기 ■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 | 6 | 9.38% |
| 10. 놀이터와 공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터와 공원에 관하여 알아보기 ▣ 놀이터와 공원 꾸미기 ■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 | 6 | 9.38% |
| 11. 마크와 표지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크와 표지판 감상하기 ◆ 마크 꾸미기 ▣ 표지판 꾸미기 ■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 | 6 | 9.38% |
| 12. 우리 나라 미술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나라의 미술품에 관하여 알아보기 ▣ 감상의 느낌 표현하기 ■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 | 4 | 6.25% |
| 계 | | 64 | 100% |

앞의 <표 4>에서 보듯이 7차 교육과정에서의 3·4·6학년 미술과에서 관화영역은 9.38%로 6차 교육과정의 시간 배당과 같으나, 5학년은 관화지도 시간이 한 시간도 배당되지 않아 연계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표 5> 학년별 내용 체계

| 영역 | 3, 4학년 필수 학습 요소 | 5, 6학년 필수 학습 요소 |
|---------|--|--|
| 1.미적 체험 | (1) 자연미 발견 자연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 | (1)자연미와 조형미의 특징 이해 자연과 조형물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
| | (2) 조형미 발견 주변의 조형물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 | (2)자연과 조형물의 관계 이해 생활에서 자연과 조형물의 특징을 발견하고, 그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
| 2.표현 | (1)주제 표현 주제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 (1)주제 표현 주제의 특징을 생각하여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
| | (2)표현 방법 평면과 입체의 특징을 생각하여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 (2)표현 방법 평면과 입체의 특징을 생각하여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
| | (3)조형 요소와 원리 조형 요소와 원리를 알고 표현할 수 있다. | (3)조형 요소와 원리 조형 요소와 원리를 알고 표현할 수 있다. |
| | (4)표현 재료와 용구 재료와 용구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알고 표현할 수 있다. | (4)표현 재료와 용구 재료와 용구의 특성을 탐색하여 표현할 수 있다. |
| 3.감상 | (1)서로의 작품 감상 작품을 보는 것에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다. | (1)서로의 작품 감상 작품의 표현 특징을 찾아 설명할 수 있다. |
| | (2)미술품 감상 우리 고장과 우리 나라의 미술품에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다. | (2)미술품 감상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 미술품의 표현 특징을 찾아 설명할 수 있다. |

학년간의 학습 요소들이 연계되어 있으나 관화 내용만은 제외되어 있다.

4) 미술과 교육과정에 의한 관화지도 교재 분석

교육 과정에 의한 관화교육 내용을 학년별로 구분하고 단원별 목표, 지도 내용을 분석해 보았다. 관화영역은 연간 3학년은 4시간, 4·6학년은 6시간 배정되어 있으며 미술 교과서 4권과 교사용지도서 4권에서 관화와 관련된 부분을 발췌,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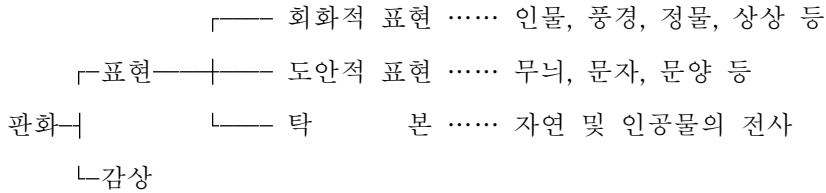
<표 6> 미술과 교육과정에 의한 관화지도 교재 분석 3~6학년

| 학년 | 단원 | 관화 종류 | 시간 | 지도 주요 내용 | 재료 용구 | 지도상의 요점 | 관형 |
|----|--------------------|----------|----|---|--|--|----------|
| 3 | 2. 생활 속의 이야기 | 종이 관화 | 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 속의 장면을 그린 작품 감상하기 ◆ 경험한 것, 생각한 것 표현하기 ■ 종이판을 만들어 찍어보기 ■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 | 교사 준비물 프레스기, 잉크, 잉크판, 롤러, 바니시유, 석유, 잉크나이프 어린이 준비물 두꺼운 도화지, 골판지, 노끈, 실, 색도화지, 신문지, 도화지, 가위, 문지르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에 대한 설명보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보도록 한다. · 제작방법을 자세하게 소개하여 제작 방법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 창의적인 방법을 격려하여 조잡한 작품이 되지 않도록 하고 관화를 찍을 코너를 마련한다. | 블록 관화 |

| 학년 | 단원 | 관화 종류 | 시간 | 지도 주요 내용 | 재료 용구 | 지도상의 요점 | 관형 |
|----|--------------------|----------------|----|--|--|--|----------|
| 4 | 5. 판을 이용한 표현 | 고무 판화 | 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각칼의 쓰임새 알아보기 ■ 고무판을 이용하여 표현하기 ■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 | <p>교사 준비물</p> <p>참고 작품, 사진 자료, VTR 자료, 잉크판, 판화용 잉크, 바니시유, 석유, 핀셋, 잉크나이프, 롤러, 휴지</p> <p>어린이 준비물</p> <p>도화지, 색도화지, 고무판, 먹지, 얇은 종이, 조각칼, 롤러, 물감, 바렌</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화의 제작 과정을 그림이나 글로 제시하여 작업 중 다음 단계를 확인하도록 한다. · 창칼은 두 번 그려 새긴다. · 사전에 검은 도화지에 밑그림을 그려오도록 한다. | 블록 판화 |
| 5 | . | . | . | . | . | . | . |
| 6 | 4. 다색 판화 | 다색 고무 판화 | 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색 판화 감상하기 ● 다색 판화 만들기 ◆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조각칼, 고무판, 수채용구, 붓 ②아크릴판, 화선지, 밀가루풀 ③스프레이 래커, 스펀지, 물감 ④조각칼, 고무판, 색도화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화에 관한 이해가 정립되도록 설명해 준다. · 좌우가 바뀌는 것을 밑그림 그리기 전에 지도한다. · 밀가루 풀과 물을 함께 약간씩 섞는다. | 블록 판화 |

5) 관화교육의 형식적 골격

관화교육의 형식적 골격을 미술과의 골격을 기본으로 하여 추출해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위에서 보듯이 관화지도의 형식적 골격은 다른 분야와 같이 크게 표현과 감상으로 대별할 수 있다. 형식에 따라 회화적인 표현 방식으로는 인물, 풍경, 정물, 상상 등을 표현할 수 있고, 도안적 표현으로 다소 구성적인 성격을 띠는 무늬, 문자, 문양 등으로써 다색 관화에 활용이 가능하다. 탁본은 자연물이나 인공물을 전사하며 문화재 등에 관심을 갖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부차적인 가치도 있다. 관화의 감상은 어린이의 타고난 개성, 창의성, 느낌, 생각 등을 마음껏 표현한 부분을 발견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스스로 자아의식을 인식하고 개방적인 관화 감상 분위기가 조성된다. 이와 같은 관화의 교육적 요소들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관화를 통한 표현력을 높일 수 있다.

<표 7> 관화 표현의 성격 심상

| 구 분 | 내 용 |
|-----|---|
| 표현력 | 심상적 표현력을 길러야 한다. |
| 적응력 | 재료 용구의 특성 및 그것을 다루는 기능이 요구되는 등 주어진 복잡한 조건에 적응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 |
| 응용력 | 관화 표현에 필요한 재료, 용구, 기법 등의 필요한 조건을 자기 주변 환경에서 충족할 수 있는 발견 및 탐구 능력과 태도가 길러져야 한다. |

다음은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판화지도의 일반적인 교수-학습 과정안이다.

<표 8>

다색 고무 판화 수업안

6학년

| | | |
|-----------------|--|--|
| 단 원 | 4.다색 판화 | |
| 본시주제 | ○ 다색 판화 감상하기 ○ 다색 판화 만들기 ○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 | |
| 학습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가지 판화에 관한 특징을 이해한다. ◎ 다색 판화의 특징을 살려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 다색 판화의 제작 순서와 방법을 알고 직어서 나타낼 수 있다. | |
| 지도과정 | 교수·학습 활동 | 자료 및 유의점 |
| 준 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기 유발 및 학습 목표 확인 · 똑같은 크리스마스 카드나 생일 초대장을 제시 · 똑같은 그림을 여러 장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발표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리스마스카드 · 생일 초대장 |
| 발 상 및 구 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작품 감상 참고 작품을 감상하여 표현 재료, 방법과 특징 알기 ○ 종이 판화 제작 방법 알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한 용구 및 재료 확인 -재료와 용구의 사용 방법 익히기 | |
| 표 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 제작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정하고 밑그림 그리기 - 생활 속에서 인상 깊었던 일 생각하기 ■ 종이판 만들기 ■ 잉크 바르기 ■ 문지르기 ■ 찍어보기 ■ 수정 보완하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작방법을 자세하게 소개하여 제작 방법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줌. · 작은 부분일수록 단단히 붙임. · 창의적인 방법을 격려함. |
| 감 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로의 작품에서 나타난 재미있는 점을 이야기하기 · 자신의 작품 - 주제와 표현방법에 대하여 발표 · 서로의 작품 - 특징이나 느낌을 이야기한다. ■ 작품 보관 방법에 대하여 생각하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지한 자기평가 · 서로의 특징을 살피도록 지도함. |

2. 판화 지도 실태 조사 및 분석

초등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4·5·6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고 항목에 따라 분석하였다.

1) 실태조사

(1) 설문지 문항 분류 - 판화의 지도내용과 지도 방법에 대하여 22개 선택형 문항과 서술형 문항을 상세화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설문 실시 방법

① 일시 : 2002년 2월 4일 ~ 9일 (6일 간)

② 장소 : 설문 대상의 각 학교

③ 실시 인원 : 제주시 초등학교 20개교 4·5·6학년 438명(남 227명, 여 211명)

2) 조사 및 분석

위와 같은 실태 분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설문 조사 및 분석을 하였다.

(1) 미술시간에 대한 흥미도

① 미술시간에 대한 느낌

미술시간에 대한 느낌을 살펴본 결과는 <표 9>과 같이 전체적으로 미술시간이 재미있다고 느끼는 어린이가 59.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그저 그렇다 25.6%, 재미없다 14.6% 순으로 나타났다.

<표 9>

미술시간에 대한 느낌

| 구분 | | 재미있다 | 재미없다 | 그저 그렇다 | 계 | χ^2 (df) | p |
|----|-----|---------------|--------------|---------------|----------------|------------------|-------|
| 학년 | 4학년 | 128 (83.1) | 11 (7.1) | 15 (9.7) | 154 (35.2) | 63.89*** (4) | 0.000 |
| | 5학년 | 39 (43.8) | 25 (28.1) | 25 (28.1) | 89 (20.3) | | |
| | 6학년 | 95 (48.7) | 28 (14.4) | 72 (36.9) | 195 (44.5) | | |
| 성별 | 남 | 130 (57.3) | 43 (18.9) | 54 (23.8) | 227 (51.8) | 7.15* (2) | 0.028 |
| | 여 | 132 (62.6) | 21 (10.0) | 58 (27.5) | 211 (48.2) | | |
| 계 | | 262 (59.8) | 64 (14.6) | 112 (25.6) | 438 (100.0) | | |

* p<.05, *** p<.001

학년별로는 4학년 어린이가 다른 학년 어린이들보다 미술시간이 재미있다고 느끼는 반면, 5학년은 재미없다고 느끼는 어린이, 6학년은 그저 그렇다고 느끼는 어린이가 더 많았으며,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63.89$, $p<.001$). 성별로는 여자어린이가 남자어린이 보다 미술시간이 재미있다고 느끼는 반면, 남자어린이는 여자어린이보다 재미없다고 느끼는 어린이가 많았으며,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7.15$, $p<.05$).

이상과 같이 미술시간이 재미있다고 느끼는 어린이가 많았으며, 4학년 어린이와 여자어린이가 다른 어린이보다 미술시간이 재미있다고 인식하였다. 이는 미술은 자기 표현의 기회가 주어지고 새로운 표현 방법이나 재료를 통해 나름대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성취감이 높은 교과이기 때문에 많은 어린이들이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으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는 경험적인 교재 연구와 발상을 돕는 자료 제작 및 수집으로 창의적인 표현활동이 되도록 이끌어야 하겠다.

② 미술시간이 재미있는 이유

미술시간이 재미있는 이유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10>과 같이 전체적으로 미술에 직접 활동하는 것이 좋아서 재미있다고 느끼는 어린이가 47.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원래 미술시간이 좋아서 43.5%, 선생님이 수업을 재미있게 하셔서 8.8% 순으로 나타났다.

<표 10> 미술시간이 재미있는 이유

| 구 분 | 선생님이 수업을 재미있게 하셔서 | 원래 미술시간이 좋아서 | 직접 활동하는 것이 좋아서 | 계 | χ^2 (df) | p | |
|-----|-------------------|---------------|----------------|----------------|---------------|-------------|-------|
| 학년 | 4학년 | 11 (8.6) | 58 (45.3) | 59 (46.1) | 128 (48.9) | 5.33 (4) | 0.255 |
| | 5학년 | 2 (5.1) | 12 (30.8) | 25 (64.1) | 39 (14.9) | | |
| | 6학년 | 10 (10.5) | 44 (46.3) | 41 (43.2) | 95 (36.3) | | |
| 성별 | 남 | 14 (10.8) | 60 (46.2) | 56 (43.1) | 130 (49.6) | 2.74 (2) | 0.254 |
| | 여 | 9 (6.8) | 54 (40.9) | 69 (52.3) | 132 (50.4) | | |
| 계 | 23 (8.8) | 114 (43.5) | 125 (47.7) | 262 (100.0) | | | |

학년별로는 4학년과 6학년 어린이는 5학년 어린이보다 원래 미술시간이 좋아서 미술시간을 재미있어 하는 반면, 5학년 어린이는 다른 어린이들보다 직접 활동하는 것이 좋아서 미술시간을 재미있어 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성별로는 남자어린이는 여자어린이보다 원래 미술시간이 좋아서 미술시간을 재미있어 하는 반면, 여자어린이는 남자어린이보다 직접 활동하는 것이 좋아서 재미있어 하였으나 큰 차이는 아니었다. 미술은 다른 교과에 비하여 활동이 다양하고 직접 무엇을 창작하며 참여하는 활동이다. 어린이의 심리가 움직이고 조작하는 활동 속에서 내재해 있는 많은 가능성을 실현시키려고 하는데서 좋아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다.

③ 미술시간이 재미없는 이유

미술시간이 재미없는 이유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11>와 같이 그저 미술시간이 싫어서 재미없다고 느끼는 어린이 45.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표현능력이 모자라서 31.3%, 재료준비가 귀찮고 가져오기 싫어서 12.5%, 선생님의 수업이 재미없어서 10.9%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술시간이 싫어서 재미없다고 느끼는 어린이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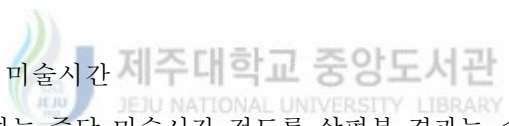
<표 11>

미술시간이 재미없는 이유

| 구 분 | 빈도(명) | 백분율(%) |
|--------------------|-------|--------|
| 선생님의 수업이 재미없어서 | 7 | 10.9 |
| 재료준비가 귀찮고 가져오기 싫어서 | 8 | 12.5 |
| 표현능력이 모자라서 | 20 | 31.3 |
| 그저 미술시간이 싫어서 | 29 | 45.3 |
| 계 | 64 | 100.0 |

이는 그리기에만 치중한 미술지도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고, 남만큼 못 그리는 두려움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술에 흥미를 갖도록 어린이의 특성에 맞게 지도해야 할 것이다. 저학년에서 좋아하던 미술을 고학년이 되어서 싫어하게 되는 정신적 발달단계에도 관련이 있겠지만, 미술지도는 어린이의 주체적인 흥미 유발을 일으켜 동적이고 활발한 수업 전개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요인이 되므로 교사의 수업 개선 및 미술 교과에 대한 전문적인 실기연수를 실시하여 적극적인 교수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④ 희망하는 주당 미술시간



어린이들이 희망하는 주당 미술시간 정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12>과 같이 전체적으로 미술시간이 1시간 정도가 좋다고 인식하는 어린이가 30.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시간 정도 26.9%, 2-3시간 정도 24.9%, 3시간 이상 17.8% 순으로 나타났다.

<표 12>

희망하는 주당 미술시간

| 구 분 | 1시간 정도 | 2시간 정도 | 2~3시간 정도 | 3시간 이상 | 계 | χ^2 (df) | p | |
|-----|---------------|---------------|---------------|--------------|----------------|------------------|----------------|-------|
| 학년 | 4학년 | 39 (25.3) | 36 (23.4) | 44 (28.6) | 35 (22.7) | 154 (35.2) | 12.15 (6) | 0.059 |
| | 5학년 | 36 (40.4) | 26 (29.2) | 18 (20.2) | 9 (10.1) | 89 (20.3) | | |
| | 6학년 | 58 (29.7) | 56 (28.7) | 47 (24.1) | 34 (17.4) | 195 (44.5) | | |
| 성별 | 남 | 80 (35.2) | 55 (24.2) | 45 (19.8) | 47 (20.7) | 227 (51.8) | 12.05** (3) | 0.007 |
| | 여 | 53 (25.1) | 63 (29.9) | 64 (30.3) | 31 (14.7) | 211 (48.2) | | |
| 계 | 133 (30.4) | 118 (26.9) | 109 (24.9) | 78 (17.8) | 438 (100.0) | | | |

**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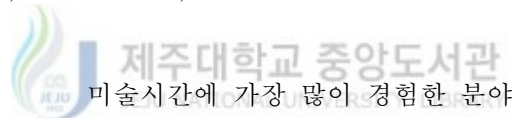
학년별로는 4학년은 다른 학년 어린이들에 비해 주당 미술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좋겠다고 인식하는 어린이가 많은 반면, 5학년은 1시간 정도가 좋다고 인식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성별로는 남자어린이가 여자어린이보다 주당 미술시간이 1시간 정도가 좋겠다고 인식하는 반면, 여자어린이가 남자어린이보다 2-3시간 정도가 좋겠다고 인식하였으며,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2.05$, $p<.01$).

이상과 같이 주당 미술시간이 1시간 정도가 좋다고 인식하는 어린이가 가장 많았으며, 여자어린이 보다 남자어린이가 주당 미술시간이 1시간 정도가 좋다고 인식하였다.

⑤ 미술시간에 가장 많이 경험한 분야

미술시간에 가장 많이 경험한 분야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13>와 같이 전체적으로 미술시간에 스케치를 한 어린이가 53.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수채화 22.6%, 만들기 8.7%, 꾸미기 6.8%, 포스터 5.0% 순으로 나타났다

<표 13>



| 구 분 | 스케치 | 수채화 | 꾸미기 | 만들기 | 포스터 | 기타 | 계 | χ^2 (df) | p |
|-----|---------------|---------------|--------------|--------------|--------------|-------------|----------------|------------------|-------|
| 학년 | 4학년 | 89 (57.8) | 20 (13.0) | 18 (11.7) | 15 (9.7) | 8 (5.2) | 4 (2.6) | 25.20** (10) | 0.005 |
| | 5학년 | 48 (53.9) | 22 (24.7) | 5 (5.6) | 10 (11.2) | 1 (1.1) | 3 (3.4) | | |
| | 6학년 | 99 (50.8) | 57 (29.2) | 7 (3.6) | 13 (6.7) | 13 (6.7) | 6 (3.1) | | |
| 성별 | 남 | 132 (58.1) | 44 (19.4) | 14 (6.2) | 17 (7.5) | 11 (4.8) | 9 (4.0) | 6.45 (5) | 0.265 |
| | 여 | 104 (49.3) | 55 (26.1) | 16 (7.6) | 21 (10.0) | 11 (5.2) | 4 (1.9) | | |
| 계 | 236 (53.9) | 99 (22.6) | 30 (6.8) | 38 (8.7) | 22 (5.0) | 13 (3.0) | 438 (100.0) | | |

** $p<.01$

학년별로는 저학년일수록 미술시간에 스케치를 경험한 어린이가 많은 반면, 고학년일수록 수채화를 경험한 어린이가 더 많았으며,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25.20$, $p<.01$). 성별로는 남자어린이가 여자어린이보다 미술시간에 스케치를 경험한 어린이가 많은 반면, 여자어린이는 남자어린이보다 수채화를 경험한 어린이가 더 많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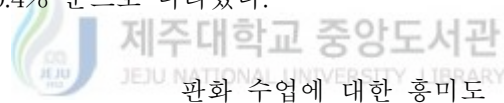
이상과 같이 미술시간에 스케치를 경험한 어린이가 가장 많았는데, 특히 저학년일수록 미술시간에 스케치를 경험한 어린이가 많았다.

(2) 판화 수업지도 실태

① 판화 수업에 대한 흥미도

판화 수업에 대한 흥미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14>와 같이 전체적으로는 판화 수업에 대해 재미있다고 느끼는 어린이가 49.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그저 그렇다 30.8%, 재미없다 19.4% 순으로 나타났다.

<표 14>



판화 수업에 대한 흥미도

| 구 분 | | 재미있다 | 재미없다 | 그저 그렇다 | 계 | χ^2 (df) | p |
|-----|-----|---------------|--------------|---------------|----------------|------------------|-------|
| 학년 | 4학년 | 86 (55.8) | 21 (13.6) | 47 (30.5) | 154 (35.2) | 18.96** (4) | 0.001 |
| | 5학년 | 32 (36.0) | 31 (34.8) | 26 (29.2) | 89 (20.3) | | |
| | 6학년 | 100 (51.3) | 33 (16.9) | 62 (31.8) | 195 (44.5) | | |
| 성별 | 남 | 112 (49.3) | 46 (20.3) | 69 (30.4) | 227 (51.8) | 0.22 (2) | 0.894 |
| | 여 | 106 (50.2) | 39 (18.5) | 66 (31.3) | 211 (48.2) | | |
| 계 | | 218 (49.8) | 85 (19.4) | 135 (30.8) | 438 (100.0) | | |

** $p<.01$

학년별로는 4학년과 6학년은 5학년보다 관화 수업을 더 재미있어 하는 반면, 5학년은 재미없어 하는 어린이가 많았으며,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x^2=18.96$, $p<.01$). 성별로는 남자어린이와 여자어린이 모두 큰 차이 없이 관화 수업을 재미있어 하는 어린이가 많았다. 이상과 같이 관화 수업을 재미있어 하는 어린이가 많았는데, 특히 5학년보다 4학년과 6학년 어린이가 다른 관화 수업을 재미있어 하였다. 관화는 타 영역과 달리 재료나 기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흥미가 대체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어린이들에게 자유롭고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심리적·시간적·공간적·물리적 조건을 조성해 줄 때 더욱 의욕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이 될 것이다.

② 관화 수업 지도 방식

관화 수업에 대한 지도방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15>과 같이 전체적으로는 설명을 듣고 직접 하는 방식으로 지도 받은 어린이가 47.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교과서 중심으로 설명을 들었다 21.0%, 설명을 듣고 자료도 이용하여 직접 한다 13.0%, 별로 지도를 받지 못한다 9.4% 직접 한다 9.1% 순으로 나타났다.

<표 15>



| 구분 | 교과서 중심으로 설명을 들었다 | 직접 한다 | 설명을 듣고 직접 한다 | 설명을 듣고 자료로 이용하여 직접 한다 | 별로 지도를 받지 못한다 | 계 | x^2 (df) | p |
|----|------------------|-----------|--------------|-----------------------|---------------|-------------|-------------|-------|
| 학년 | 4학년 | 42 (27.3) | 13 (8.4) | 66 (42.9) | 17 (11.0) | 16 (10.4) | 9.81 (8) | 0.279 |
| | 5학년 | 17 (19.1) | 11 (12.4) | 39 (43.8) | 12 (13.5) | 10 (11.2) | | |
| | 6학년 | 33 (16.9) | 16 (8.2) | 103 (52.8) | 28 (14.4) | 15 (7.7) | | |
| 성별 | 남 | 53 (23.3) | 29 (12.8) | 93 (41.0) | 27 (11.9) | 25 (11.0) | 14.13** (4) | 0.007 |
| | 여 | 39 (18.5) | 11 (5.2) | 115 (54.5) | 30 (14.2) | 16 (7.6) | | |
| 계 | 92 (21.0) | 40 (9.1) | 208 (47.5) | 57 (13.0) | 41 (9.4) | 438 (100.0) | | |

** $p<.01$

학년별로는 4학년은 다른 학년 어린이들이 비해 교과서 중심으로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판화수업을 지도 받은 어린이가 많은 반면, 6학년은 설명을 듣고 직접 하는 방식으로 지도 받은 어린이가 많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성별로는 남자어린이는 여자어린이보다 교과서 중심으로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판화수업을 지도 받은 어린이가 많은 반면, 여자어린이는 남자어린이보다 설명을 듣고 직접 하는 방식으로 지도 받은 어린이가 많았으며,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4.13$, $p<.01$).

이상과 같이 설명을 듣고 직접 하는 방식으로 판화수업을 지도 받은 어린이가 많았으며, 특히 남자어린이보다 여자어린이가 설명을 듣고 직접 하는 방식으로 판화수업 지도를 많이 받았다. 또 어린이들은 새로운 경험, 새로운 재료를 취급할 때 흥미로워 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므로 효율적인 교수-학습활동 이루어져야 하겠다.

판화는 과정에 대한 경험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효과적인 교재연구를 할 수 없는 과정이 복잡한 실기영역이다. 경험을 바탕으로 판화의 원리와 기법들을 체험적으로 이해하면, 수업을 계획할 때 똑같은 기법으로도 접근 방법에 따라 다양한 교육적 결과를 얻을 수 있어, 판화교육의 궁극적인 통합효과를 얻기 쉽다. 판화 수업을 계획하기 전에 판화의 작업경험이 있다면 미술교육을 위해 매우 중요한 체험이다. 그러나 모든 판화영역을 경험을 통하여 지도해야 한다는 것은 현재의 교육현장의 상황에서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는 판화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들이나 이미 알려져서 이해하기 쉬운 기법을 토대로 기초적인 단계에서 출발하여 경험이 없는 어려운 단계로 체계적으로 수업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현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바람직하게 판화영역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판화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을 살아있는 경험으로 바꿀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학년 단위의 교사들의 교재 연구활동이나, 미술에 관심있는 교사들의 모임인 소그룹 활동이나 미술 교과연구회 활동에서 기초적인 실기연수에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수준을 높여서 연수를 하여 경험적 교재연구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가장 재미있는 판화 분야

가장 재미있어 하는 판화 분야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16>과 같이 전체적으로

는 고무판화가 51.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채소를 자르거나 새겨서 무늬찍기 23.5%, 물체를 놓고 찍기 9.8%, 종이판화 6.4%, 목판화 5.7%, 탁본 3.2%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4학년은 다른 학년 어린이들보다 채소를 자르거나 새겨서 무늬를 찍는 판화를 재미있어 하는 반면, 5, 6학년은 4학년 어린이보다 고무판화를 더 재미있어 하였으며,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x^2=49.52$, $p<.001$)

<표 16> 가장 재미있는 판화 분야

| 구 분 | 고무 판화 | 목판화 | 채소를 자르거나 새겨서 무늬 찍기 | 물체를 놓고 찍기 | 종이 판화 | 탁본 | 계 | x^2 (df) | p |
|-----|---------------|---------------|--------------------|--------------|--------------|--------------|----------------|------------------|-------|
| 학년 | 4학년 | 53 (34.4) | 6 (3.9) | 48 (31.2) | 19 (12.3) | 17 (11.0) | 11 (7.1) | 49.52*** (10) | 0.000 |
| | 5학년 | 61 (68.5) | 2 (2.2) | 14 (15.7) | 6 (6.7) | 5 (5.6) | 1 (1.1) | | |
| | 6학년 | 111 (56.9) | 17 (8.7) | 41 (21.0) | 18 (9.2) | 6 (3.1) | 2 (1.0) | | |
| 성별 | 남 | 118 (52.0) | 11 (4.8) | 50 (22.0) | 26 (11.5) | 16 (7.0) | 6 (2.6) | 3.15 (5) | 0.678 |
| | 여 | 107 (50.7) | 14 (6.6) | 53 (25.1) | 17 (8.1) | 12 (5.7) | 8 (3.8) | | |
| 계 | 225 (51.4) | 25 (5.7) | 103 (23.5) | 43 (9.8) | 28 (6.4) | 14 (3.2) | 438 (100.0) | | |

*** $p<.001$

이상과 같이 고무판화를 재미있어 하는 어린이가 많았으며, 4학년보다 5, 6학년 어린이가 고무판화를 더 재미있어 하였다. 고무판화를 선호하는 것은 어린이들이 파고 새기기에 용이한 고무판을 주로 판화의 판으로 사용하고 있어 경험에 의한 선호라고 해석된다.

어린이들은 찍히는 신기함에서 판화에 대한 매력을 느낀다. 모래 위나 눈 위에 발자국을 남기는 것은 본능적인 욕구이며 무의식적인 판화에 대한 작업이다. 이는 판화가 갖는 교육적인 가치로 어린이가 생각하는 것을 마음껏 찍었을 때 거기에

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형태나 색채의 효과나 우연의 효과는 미술 수업에서 어린이의 창의력을 더욱 자극할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린이에게 다양한 판화의 종류를 접하게 하고 제작 경험을 갖도록 지도해야한다.

④ 다색판화에서 판 사용 수

다색판화를 하는 경우 사용하는 판 수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17>과 같이 전체적으로는 다색판화를 해 본 적이 없는 어린이가 50.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가지를 사용하는 어린이가 28.8%, 3가지 15.1%, 4가지 6.2% 순으로 나타났다.

<표 17> 다색판화에서 판 사용 수

| 구 분 | | 2가지 | 3가지 | 4가지 | 한 적이 없다 | 계 | χ^2 (df) | p |
|-----|-----|---------------|--------------|--------------|---------------|----------------|------------------|-------|
| 학년 | 4학년 | 36 (23.4) | 31 (20.1) | 16 (10.4) | 71 (46.1) | 154 (35.2) | 16.86* (6) | 0.010 |
| | 5학년 | 33 (37.1) | 8 (9.0) | 2 (2.2) | 46 (51.7) | 89 (20.3) | | |
| | 6학년 | 57 (29.2) | 27 (13.8) | 9 (4.6) | 102 (52.3) | 195 (44.5) | | |
| 성별 | 남 | 70 (30.8) | 36 (15.9) | 16 (7.0) | 105 (46.3) | 227 (51.8) | 2.82 (3) | 0.421 |
| | 여 | 56 (26.5) | 30 (14.2) | 11 (5.2) | 114 (54.0) | 211 (48.2) | | |
| 계 | | 126 (28.8) | 66 (15.1) | 27 (6.2) | 219 (50.0) | 438 (100.0) | | |

* p<.05

학년별로는 4학년은 다른 학년에 비해 3가지 판을 사용하여 다색판화를 하는 어린이가 많은 반면, 5학년은 2가지 판을 사용하는 어린이가 더 많았으며,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6.86$, $p<.05$). 성별로는 남자어린이는 여자어린이보다 2가지 판을 사용하여 다색판화를 하는 어린이가 많은 반면, 여자어린이는 남자어린이보다 다색판화를 해 본 적이 없는 어린이가 더 많았으나 큰 차이는 아니었다.

이상과 같이 다색판화를 해 본 적이 없는 어린이가 가장 많았으며, 다색판화를 해 본 학생들의 경우는 4학년은 3가지 판을, 5학년은 2가지 판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판화는 다양한 경험·재료·색을 사용하는 것이 확산적 사고를 일으켜 창의성 있는 작품 활동 할 수 있다. 현장에서 다색 판화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편이다.

⑤ 다른 미술시간과 비교 시 판화시간의 흥미도

다른 미술시간과 비교하여 판화 시간의 흥미 정도가 어떠한지 살펴본 결과는 <표 18>와 같이 전체적으로 보통이라고 느끼는 어린이가 44.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재미있다 23.7%, 재미없다 16.2%, 아주 재미있다 15.5%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4학년과 6학년이 5학년 어린이들보다 다른 미술시간에 비해 판화시간이 더 재미있다고 느꼈으며,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22.70$, $p<.01$). 성별로는 남자어린이보다 여자어린이가 다른 미술시간에 비해 판화시간이 더 재미있다고 느꼈으나 큰 차이는 아니었다.

<표 18> 다른 미술시간과 비교 시 판화시간의 흥미도

| 구 분 | 아주 재미있다 | 재미있다 | 보통이다 | 재미없다 | 계 | χ^2 (df) | p | |
|-----|--------------|---------------|---------------|---------------|----------------|---------------|----------------|-------|
| 학년 | 4학년 | 32 (20.8) | 40 (26.0) | 64 (41.6) | 18 (11.7) | 154 (35.2) | 22.70** (6) | 0.001 |
| | 5학년 | 6 (6.7) | 14 (15.7) | 43 (48.3) | 26 (29.2) | 89 (20.3) | | |
| | 6학년 | 30 (15.4) | 50 (25.6) | 88 (45.1) | 27 (13.8) | 195 (44.5) | | |
| 성별 | 남 | 34 (15.0) | 48 (21.1) | 110 (48.5) | 35 (15.4) | 227 (51.8) | 3.25 (3) | 0.354 |
| | 여 | 34 (16.1) | 56 (26.5) | 85 (40.3) | 36 (17.1) | 211 (48.2) | | |
| 계 | 68 (15.5) | 104 (23.7) | 195 (44.5) | 71 (16.2) | 438 (100.0) | | | |

** $p<.01$

이상과 같이 다른 미술시간에 비해 판화시간의 흥미 정도가 보통이라고 느끼는 어린이가 가장 많았으며, 4학년과 6학년 어린이가 5학년 학생들보다 판화시간을 더 재미있어 하였다.

여러 가지 번거롭고 복잡한 제작 과정이 있지만 재미있게 생각하는 어린이가 많은 것으로 보아 교사의 치밀한 수업 설계 및 재질적인 기능을 고려하여 지도한다면 높은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⑥ 관화 방법

관화 방법에 대한 인지 정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19>과 같이 전체적으로 관화 방법을 조금 알고 있는 어린이가 55.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해 보았지만 잘 모른다 18.0%, 잘 모른다 13.5%, 잘 알고 있다 12.6%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4학년 어린이는 다른 어린이보다 관화방법에 대해 해 보았지만 잘 모르겠다는 어린이가 많은 반면, 5, 6학년은 4학년 어린이보다 조금 알고 있는 어린이가 많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성별로는 여자어린이가 남자어린이보다 관화 방법에 대해 더 알고 있는 어린이가 많았으나 큰 차이는 아니었다.

<표 19> 관화 방법 인지 정도

| 구 분 | | 잘 알고 있다 | 조금 안다 | 해 보았지만 잘 모른다 | 잘 모른다 | 계 | χ^2 (df) | p |
|-----|-----|--------------|---------------|--------------|--------------|----------------|------------------|-------|
| 학년 | 4학년 | 16 (10.4) | 76 (49.4) | 36 (23.4) | 26 (16.9) | 154 (35.2) | 12.51 (6) | 0.051 |
| | 5학년 | 8 (9.0) | 53 (59.6) | 14 (15.7) | 14 (15.7) | 89 (20.3) | | |
| | 6학년 | 31 (15.9) | 116 (59.5) | 29 (14.9) | 19 (9.7) | 195 (44.5) | | |
| 성별 | 남 | 27 (11.9) | 119 (52.4) | 42 (18.5) | 39 (17.2) | 227 (51.8) | 6.08 (3) | 0.108 |
| | 여 | 28 (13.3) | 126 (59.7) | 37 (17.5) | 20 (9.5) | 211 (48.2) | | |
| 계 | | 55 (12.6) | 245 (55.9) | 79 (18.0) | 59 (13.5) | 438 (100.0) | | |

이상과 같이 학년이나 성별에 따른 큰 차이 없이 관화 방법에 대해 조금은 알고 있는 어린이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⑦ 관화에 대한 관심

관화에 대한 관심 정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20>과 같이 전체적으로 관화를 조금은 하고 싶어하는 어린이가 32.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그저 그렇다 29.2%, 꼭 하고 싶다 23.5%, 할 필요를 못 느낀다 15.1% 순으로 나타났다.

<표 20> 관화에 대한 관심

| 구 분 | | 꼭 하고 싶다 | 조금은 하고 싶다 | 그저 그렇다 | 할 필요를 못 느낀다 | 계 | χ^2 (df) | p |
|-----|-----|---------------|-----------------|---------------|-------------------|----------------|------------------|-------|
| 학년 | 4학년 | 56 (36.4) | 38 (24.7) | 43 (27.9) | 17 (11.0) | 154 (35.2) | 32.27*** (6) | 0.000 |
| | 5학년 | 9 (10.1) | 31 (34.8) | 26 (29.2) | 23 (25.8) | 89 (20.3) | | |
| | 6학년 | 38 (19.5) | 72 (36.9) | 59 (30.3) | 26 (13.3) | 195 (44.5) | | |
| 성별 | 남 | 51 (22.5) | 71 (31.3) | 70 (30.8) | 35 (15.4) | 227 (51.8) | 0.80 (3) | 0.849 |
| | 여 | 52 (24.6) | 70 (33.2) | 58 (27.5) | 31 (14.7) | 211 (48.2) | | |
| 계 | | 103 (23.5) | 141 (32.2) | 128 (29.2) | 66 (15.1) | 438 (100.0) | | |

*** $p < .001$

학년별로는 4학년은 5, 6학년보다 관화를 꼭 하고 싶어하는 어린이가 많은 반면, 5, 6학년은 조금 하고 싶어하는 어린이가 많았으며,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32.27$, $p < .001$). 성별로는 남자어린이와 여자어린이 모두 큰 차이 없이 관화를 하고 싶어하는 어린이가 많았다.

이상과 같이 관화를 조금은 하고 싶어하는 어린이가 가장 많았는데, 특히 4학년보다 5, 6학년 어린이가 관화를 더 많이 하고 싶어하였다.

미술과 학습에서 관화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관화 지도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도 방법 개선이 요구된다.

⑧ 판화 수업 소재 결정 방법

<표 21>

판화 수업 소재 결정 방법

| 구 분 | 선생님의 소개 작품을 보고 | 교과서 작품을 보고 | 친구의 것을 보고 | 창의성을 발휘하여 | 계 | χ^2 (df) | p | |
|-----|----------------|--------------|---------------|-------------|---------------|----------------|----------------|-------|
| 학년 | 4학년 | 34 (22.1) | 63 (40.9) | 8 (5.2) | 49 (31.8) | 154 (35.2) | 20.94** (6) | 0.002 |
| | 5학년 | 7 (7.9) | 39 (43.8) | 4 (4.5) | 39 (43.8) | 89 (20.3) | | |
| | 6학년 | 46 (23.6) | 51 (26.2) | 8 (4.1) | 90 (46.2) | 195 (44.5) | | |
| 성별 | 남 | 40 (17.6) | 76 (33.5) | 16 (7.0) | 95 (41.9) | 227 (51.8) | 8.01* (3) | 0.046 |
| | 여 | 47 (22.3) | 77 (36.5) | 4 (1.9) | 83 (39.3) | 211 (48.2) | | |
| 계 | | 87 (19.9) | 153 (34.9) | 20 (4.6) | 178 (40.6) | 438 (100.0) | | |

* $p < .05$, ** $p < .01$

판화 수업 시 소재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21>와 같이 전체적으로 판화 수업 시 소재를 창의성을 발휘하여 결정하는 어린이가 40.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교과서 작품을 보고 결정하는 어린이가 34.9%, 선생님의 소개 작품을 보고 19.9%, 친구의 것을 보고 4.6%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4학년은 교과서 작품을 보고 판화의 소재를 결정하는 어린이가 많은 반면, 6학년은 창의성을 발휘하여 결정하는 어린이가, 5학년은 교과서 작품을 보고 결정하거나 창의성을 발휘하여 결정하는 어린이가 많았으며,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20.94$, $p < .01$). 성별로는 남자어린이는 여자어린이에 비해 친구의 것을 보고 판화의 소재를 결정하는 어린이가 많은 반면, 여자어린이는 남자어린이보다 선생님의 소개 작품을 보고 결정하는 어린이가 많았으며,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8.01$, $p < .05$).

이상과 같이 판화 수업 시 창의성을 발휘하여 소재를 결정하는 어린이가 가장 많았으며, 4학년보다 5, 6학년 어린이가 판화 수업 시 창의성을 발휘하여 소재를 결정하였다. 또한 남자어린이는 여자어린이에 비해 친구의 것을 보고 판화의 소재를 결정하는 어린이가 많은 반면, 여자어린이는 남자어린이보다 선생님의 소개 작품을 보고 결정하는 어린이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좋은 판화 수업을 위하여 어린이들에게 미적 체험을 통한 발상지도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자연과 주변의 조형물에서 색과 선·형의 아름다움을 느끼도록 하고 그 특징을 이해하여 비교하는 활동을 하며, 이러한 미적 체험 활동을 통하여 대상의 아름다움을 지각하고 반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도록 체험활동을 전개하여야 창의적인 소재를 선택하여 표현할 수 있다.

또한, 조형 활동은 이 세 영역이 구분되지 않고 체험 속에서 유기적으로 이루어 지므로 미적 체험과 표현 및 감상 영역간의 연계적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폭넓은 미적 체험 활동으로 표현 욕구를 북돋아 다양하고 창의적인 표현 활동이 되도록 지도해야한다. 여건 상 체험활동이 어려울 때는 비디오자료나 웹자료를 이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며, 판화 작품을 감상하는 기회를 자주 갖도록 지도해야 한다.

⑨ 판화시간 중 가장 어려운 점

판화시간 중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살펴본 결과는 <표 22>과 같이 전체적으로 판화수업시간 중 판을 새길 때가 어렵다고 느끼는 어린이가 42.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표현할 것을 정할 때 34.5%, 밑그림을 그릴 때 17.4%, 판을 찍을 때 6.2% 순으로 나타났다.

<표 22> 판화시간 중 가장 어려운 점

| 구분 | 표현할 것을 정할 때 | 밑그림을 그릴 때 | 판을 새길 때 | 판을 찍을 때 | 계 | χ^2 (df) | p |
|----|---------------|--------------|---------------|-------------|----------------|---------------|-------|
| 학년 | 4학년 (42.9) | 28 (18.2) | 50 (32.5) | 10 (6.5) | 154 (35.2) | 15.97* (6) | 0.014 |
| | 5학년 (20.2) | 17 (19.1) | 49 (55.1) | 5 (5.6) | 89 (20.3) | | |
| | 6학년 (34.4) | 31 (15.9) | 85 (43.6) | 12 (6.2) | 195 (44.5) | | |
| 성별 | 남 (32.6) | 45 (19.8) | 92 (40.5) | 16 (7.0) | 227 (51.8) | 2.98 (3) | 0.394 |
| | 여 (36.5) | 31 (14.7) | 92 (43.6) | 11 (5.2) | 211 (48.2) | | |
| 계 | 151 (34.5) | 76 (17.4) | 184 (42.0) | 27 (6.2) | 438 (100.0) | | |

* p<.05

학년별로는 4학년과 6학년은 5학년 어린이보다 판화 시간 중 표현할 것을 정할 때를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반면, 5학년은 다른 학년 어린이들 보다 판을 새길 때가 어렵다고 느꼈으며,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5.97, p<.05$). 성별로는 남자어린이는 여자어린이보다 판화 시간 중 밑그림을 그릴 때가 어렵다고 느끼는 반면, 여자어린이는 남자어린이보다 판을 새길 때가 어렵다고 느꼈으나 큰 차이는 아니었다.

이상과 같이 판화 시간 중, 판을 새길 때가 어렵다고 느끼는 어린이가 많았으며, 5학년 어린이가 다른 어린이보다 판화 시간 중, 판을 새길 때가 어렵다고 느꼈다. 판화가 갖고 있는 ‘단순의 미’를 알게 하고 미적 체험을 소재화 시키는 활동이 요구되며, 판을 새기는 제판 과정의 기능 지도가 우선되어야 한다. 초등학교용인 조각칼이 품질이 떨어져서 무디고 많은 힘을 요하여 어린이들이 제판 과정에서 많은 저항을 받고 있다. 품질 좋은 용구 구비도 어린이들의 표현 의욕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여 교육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다.

⑩ 판화수업 이용 자료

판화수업 시 이용하는 자료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23>와 같이 판화수업 시 게시자료를 이용하는 어린이가 42%로 가장 많았고, 참고작품을 이용하는 어린이가 41.1%로 다음으로 많았고, 다음으로 웹자료 9.3%, 비디오 자료 5.7%, 패도 1.9%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판화수업 시 참고작품을 이용하는 어린이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23>

판화수업 이용 자료

| 구 분 | 빈도(명) | 백분율(%) |
|--------|-------|--------|
| 비디오 자료 | 30 | 5.7 |
| 웹자료 | 49 | 9.3 |
| 패도 | 10 | 1.9 |
| 참고작품 | 217 | 41.1 |
| 게시자료 | 222 | 42.0 |
| 계 | 528 | 100.0 |

<표 23>에서 보면 게시자료와 참고작품을 자료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웹자료와 비디오자료 활용도가 낮은 편이다. 제작과정을 촬영한 자료와 미적 체험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다양한 비디오자료와 웹자료 활용이 필요하다. 아울러 교사의 학습 준비가 충분하지 못하며, 발상을 돕는 자료 개발이 필요하다.

① 관화자료 입수의 용이성

관화 자료를 구하기가 어떠한지 살펴본 결과는 <표 24>와 같다.

<표 24> 관화자료 입수의 용이성

| 구 분 | | 쉽다 | 어렵다 | 보통이다 | 계 | χ^2 (df) | p |
|-----|-----|--------------|--------------|---------------|----------------|------------------|-------|
| 학년 | 4학년 | 20 (13.0) | 31 (20.1) | 103 (66.9) | 154 (35.2) | 4.40 (4) | 0.355 |
| | 5학년 | 13 (14.6) | 21 (23.6) | 55 (61.8) | 89 (20.3) | | |
| | 6학년 | 40 (20.5) | 39 (20.0) | 116 (59.5) | 195 (44.5) | | |
| 성별 | 남 | 30 (13.2) | 55 (24.2) | 142 (62.6) | 227 (51.8) | 6.07* (2) | 0.048 |
| | 여 | 43 (20.4) | 36 (17.1) | 132 (62.6) | 211 (48.2) | | |
| 계 | | 73 (16.7) | 91 (20.8) | 274 (62.6) | 438 (100.0) | | |

* $p < .05$

전체적으로 보통이라고 인식하는 어린이가 62.6%로 가장 많았으나 관화 자료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인식하는 어린이가 20.8%로, 쉽다고 인식하는 어린이가 16.7%보다 많았다.

학년별로는 6학년 어린이가 다른 학년 어린이에 비해 관화 자료를 구하기가 쉽다고 인식하였으나 학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성별로는 남자어린이는 여자어린이보다 관화자료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인식하는 반면, 여자어린이는 남자어린이보다 쉽다고 인식하였으며,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6.07$, $p < .05$). 제작과정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비디오 자료와 웹자료를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올바른 관화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관화교육의 부진 요인은 다양하고 적절한 자

료 활용이 부족한 이유도 있다.

이상과 같이 판화 자료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인식하는 어린이가 쉽다고 인식하는 어린이보다 많았으나 높은 수준은 아니었으며, 남자어린이가 여자어린이보다 판화 자료를 구하기가 더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사들이 판화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부족하여 판화 잉크만 사서 농도 조절을 못하여 힘들어하거나 사용 후 로울러와 판을 석유로 잘 닦아두어야 하는데 그대로 두어 다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재료 사용 방법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교사의 실기 연수가 절실히 필요하다.

⑫ 판화재료를 구하기 어려운 이유

판화 재료를 구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25>과 같이 판화 재료를 구하기 어려워서 51.6%, 그냥 싫어서 19.8%, 재료가 비싸서 16.5%, 귀찮아서 12.1% 순으로 나타났다.

<표 25> 판화재료를 구하기 어려운 이유

| 구 분 | 빈도(명) | 백분율(%) |
|----------|-------|--------|
| 재료가 비싸서 | 15 | 16.5 |
| 구하기 어려워서 | 47 | 51.6 |
| 귀찮아서 | 11 | 12.1 |
| 그냥 싫어서 | 18 | 19.8 |
| 계 | 91 | 100.0 |

학년 초에 미술과의 세세한 부분까지 잘 파악하여 어린이들에게 구하기 어렵거나 특정한 곳에서만 판매하는 판화용품은 학교에서 학습준비물로 구입해서 제공하여야 한다.

⑬ 판화의 일상생활 적용 여부

판화의 일상생활 적용 여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26>과 같이 전체적으로는 일상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인식하는 어린이가 52.3%로 가

장 많았고, 다음으로 적용될 수 있다 36.8%, 적용될 수 없다 11.0% 순으로 나타났다.

<표 26> 관화의 일상생활 적용 여부

| 구 분 | | 있다 | 없다 | 모르겠다 | 계 | χ^2 (df) | p |
|-----|-----|---------------|--------------|---------------|----------------|------------------|-------|
| 학년 | 4학년 | 62 (40.3) | 12 (7.8) | 80 (51.9) | 154 (35.2) | 7.03 (4) | 0.134 |
| | 5학년 | 27 (30.3) | 16 (18.0) | 46 (51.7) | 89 (20.3) | | |
| | 6학년 | 72 (36.9) | 20 (10.3) | 103 (52.8) | 195 (44.5) | | |
| 성별 | 남 | 72 (31.7) | 33 (14.5) | 122 (53.7) | 227 (51.8) | 8.96* (2) | 0.011 |
| | 여 | 89 (42.2) | 15 (7.1) | 107 (50.7) | 211 (48.2) | | |
| 계 | | 161 (36.8) | 48 (11.0) | 229 (52.3) | 438 (100.0) | | |

* $p < .05$

학년별로는 4학년과 6학년은 5학년 어린이보다 관화를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반면, 5학년은 적용할 수 없다고 인식하는 어린이가 많았으나 큰 차이는 아니었다. 성별로는 남자어린이는 관화를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없다고 인식하는 어린이가, 여자어린이는 적용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어린이가 비교적 더 많았으며,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8.96$, $p < .05$).

이상과 같이 관화를 일상생활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인식하는 어린이가 많았으며, 남자어린이보다는 여자어린이가 관화를 일상생활에 적용시킬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관화와 생활과의 관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관화 수업이 수업 자체만으로 끝나고 발전적인 응용력과 창의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관화와 생활과의 연관성 지도가 소홀한 결과라 볼 수 있다. 한 개의 판으로 수십, 수만장의 같은 형이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관화의 특성을 지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겠다.

교사는 어린이 스스로 관화에 대해서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성취동기를 자극하며, 표현과정에서 관화영역의 탐구활동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고 감상할

등을 통하여 발견하지 못했던 창의성과 융통성을 재발견할 수 있도록 어린이들에게 지도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사의 관화 지도에 대한 관심과 능력 또한, 어린이들의 표현 욕구를 높이고 소질을 계발해 주고자하는 교사의 열정이 무엇보다 큰 역할을 한다.

⑭ 관화가 사용된 예

관화가 사용된 예로 무엇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27>과 같이 관화를 도장으로 이용한 어린이가 41.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카드 찍기 20.8%, 옷의 무늬 15.3%, 달력 8.7%, 표지 7.1%, 포장지 7.0%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관화를 도장으로 이용한 어린이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27> 관화가 사용된 예

| 구 분 | 빈도(명) | 백분율(%) |
|-------|-------|--------|
| 카드 찍기 | 128 | 20.8 |
| 포장지 | 43 | 7.0 |
| 표지 | 44 | 7.1 |
| 달력 | 53 | 8.7 |
| 도장 | 254 | 41.2 |
| 옷의 무늬 | 94 | 15.3 |
| 계 | 616 | 100.0 |

관화를 활용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라고 했는데 많은 어린이가 하나를 선택하고 있다. ‘도장’이나 카드 만들기에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포장지와 책의 표지 달력 등은 관화를 이용한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어린이가 많다. 관화지도할 때는 관화의 생활에 이용되는 가치를 지도하여 예술작품으로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늘 만나고 있는 ‘생활 속의 예술’이라는 사실을 인지 시켜서 관화와와의 거리를 좁히도록 하는 것도 교사의 몫이라 생각된다. 관화를 생활에 이용하도록

유도하여 실용적이고 흥미 있는 영역임을 인식시키고, 다양한 관화 재료를 자유롭게 경험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⑮ 관화 수업을 통한 개인발전

관화 수업을 통한 개인 발전 정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28>와 같이 전체적으로 관화 수업을 통한 개인 발전 정도 모르겠다고 인식하는 어린이가 51.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창의력이 발달되었다 21.2%, 관화 만드는 실력이 늘었다 20.8%, 감상 능력이 늘었다 6.8% 순으로 나타났다.

<표 28> 관화 수업을 통한 개인발전

| 구 분 | | 감상 능력이 늘었다 | 관화 만드는 실력이 늘었다 | 창의력이 발달되었다 | 모르겠다 | 계 | χ^2 (df) | p |
|-----|-----|---------------|-------------------|---------------|---------------|----------------|------------------|-------|
| 학년 | 4학년 | 20 (13.0) | 28 (18.2) | 39 (25.3) | 67 (43.5) | 154 (35.2) | 23.20** (6) | 0.001 |
| | 5학년 | 5 (5.6) | 14 (15.7) | 15 (16.9) | 55 (61.8) | 89 (20.3) | | |
| | 6학년 | 5 (2.6) | 49 (25.1) | 39 (20.0) | 102 (52.3) | 195 (44.5) | | |
| 성별 | 남 | 12 (5.3) | 44 (19.4) | 53 (23.3) | 118 (52.0) | 227 (51.8) | 3.18 (3) | 0.365 |
| | 여 | 18 (8.5) | 47 (22.3) | 40 (19.0) | 106 (50.2) | 211 (48.2) | | |
| 계 | | 30 (6.8) | 91 (20.8) | 93 (21.2) | 224 (51.1) | 438 (100.0) | | |

** p<.01

학년별로는 4학년은 다른 학년 어린이들에 비해 감상 능력이 늘었다고 인식하는 어린이와 창의력이 발달되었다고 인식하는 어린이가 많은 반면, 5학년은 잘 모르겠다는 어린이가, 6학년은 관화 만드는 실력이 늘었다고 인식하는 어린이가 많았으며,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23.20$, $p<.01$). 성별로는 남자어린이와 여자어린이 모두 큰 차이 없이 관화 수업을 통해 개인 발전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인식하는 어린이가 가장 많았다.

이상과 같이 관화수업을 통해 개인 발전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는 어린이가 많았으며, 4학년은 감상 능력과 창의력이 발달되었다고 인식하는 어린이가 많았고, 6학년은 관화 만드는 실력이 늘었다고 인식하는 어린이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어린이의 모든 미술능력은 자연적인 발달이나 선천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가 표현활동에 대하여 흥미와 표현 욕구를 갖고 참여하느냐와 교사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미술 지도에 의해서 계발되고 학습되어 진다.

관화영역에 대한 열의가 없는 관화수업은 어린이와 교사 모두에게 부담스럽고 흥미 없는 수업이 될 수 밖에 없다. 특히 교사가 적극적으로 수업활동에 참여하여 열의를 다하지 않는 관화수업은 어린이들의 흥미와 성취동기를 자극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미술 교과는 어린이의 정서발달과 깊은 관계에 있으므로 결코 지도의 편의에 따라 한정된 영역에 치우치거나, 자유방임적으로 지도되거나 기술적인 조형능력에만 편중되어서 지도됨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바람직한 미술교육을 위해서 관화영역에 대한 열의를 갖고 수업 전반을 어린이와 함께 참여하는 적극적인 교수의 역할이 필요하다.

관화영역은 익숙하지 않은 재료나 원리에 대한 탐색활동과 더불어 표현활동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영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경험이 필요하다. 실기를 통한 경험이 없는 교사는 유연성 없이 지나치게 교재에만 의존하게 되어 자칫하면 지도가 용이한 한정된 영역이나 방법에 의존하여 지도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학습결과는 교과목의 목표나 바람직한 관화영역 지도와는 거리가 먼 일회적인 학습활동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므로 교사의 적극적인 교수활동을 위하여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실기 연수가 선행되어야 하며, 미술 전담교사가 배치되어 관화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⑩ 학교 미술실 유무

학교 미술실의 유무와 그 크기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29>과 같이 전체적으로 미술실이 없는 학교가 73.1%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교실한칸의 크기로 미술실이 있다 8.5%, 교실 두 칸 크기로 미술실이 있다 5.9%, 교실 반칸 이하로 미술실이 있다 2.5% 순으로 나타났다.

<표 29>

학교 미술실 유무

| 구 분 | | 있다 - 교실 한칸 | 있다 - 교실 두칸 | 있다 - 교실 반칸 이하 | 없다 | 계 | χ^2 (df) | p |
|-----|-----|---------------|---------------|---------------------|---------------|----------------|------------------|-------|
| 학년 | 4학년 | 47 (30.5) | 10 (6.5) | 5 (3.2) | 92 (59.7) | 154 (35.2) | 27.81*** (6) | 0.000 |
| | 5학년 | 9 (10.1) | 5 (5.6) | - | 75 (84.3) | 89 (20.3) | | |
| | 6학년 | 25 (12.8) | 11 (5.6) | 6 (3.1) | 153 (78.5) | 195 (44.5) | | |
| 성별 | 남 | 44 (19.4) | 10 (4.4) | 9 (4.0) | 164 (72.2) | 227 (51.8) | 6.07 (3) | 0.108 |
| | 여 | 37 (17.5) | 16 (7.6) | 2 (0.9) | 156 (73.9) | 211 (48.2) | | |
| 계 | | 81 (8.5) | 26 (5.9) | 11 (2.5) | 320 (73.1) | 438 (100.0) | | |

*** p<.001

학년별로는 4학년은 다른 학년에 비해 교실 한 칸 크기의 미술실이 있는 경우가 비교적 많은 반면, 5, 6학년은 미술실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27.81$, $p<.001$). 이상과 같이 미술실이 없는 학교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4학년 보다 5, 6학년 어린이가 미술실이 더 없다고 인식하였다.

정규 교과목인 미술 수업에서 가장 기본적인 공간적 자료인 미술실이 없다는 것은 그 만큼 현장에서 미술에 대한 비중을 낮게 취급하고 있는 증거라고 하겠다. 특히 판화는 주변의 오염이 심하여 일정한 공간이 꼭 필요한데 교실 한 모퉁이에서 작업을 해야함으로 교사들이 가장 지도하기 힘들어하는 분야이다. 최소한 15학급에 미술실 하나는 확보되어야 원활한 미술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 대규모 학교에서 미술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교육 현장의 큰 문제이다.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한다.

⑰ 판화 수업에 대한 의견

판화 수업에 대해 어린이들의 견해를 살펴본 결과는 <표 30>과 같다.

<표 30>

판화 수업에 대한 의견

| 구 분 | 빈도(명) | 백분율(%) |
|--------------------------------|-------|--------|
| 판화는 재미있다 | 38 | 17.0 |
| 판화재료를 넉넉히 주었으면 좋겠다 | 2 | 0.9 |
| 판화 할 때 너무 어려웠다 | 12 | 5.4 |
| 판화수업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 59 | 26.5 |
|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표현하고 싶다 | 10 | 4.5 |
| 더 재미있게 수업해 줬으면 좋겠다 | 27 | 12.1 |
| 판화수업을 시간 내에 끝내도록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 1 | 0.4 |
| 판화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 7 | 3.1 |
| 여러 가지 다양한 판화를 해보고 싶다 | 11 | 4.9 |
| 판화를 하면 창의력이 발달되는 것 같아 좋다 | 3 | 1.3 |
| 재미없어서 별로 하고 싶지 않다 | 50 | 22.4 |
| 판화를 교실에서 하지 말고 밖에서 했으면 좋겠다 | 1 | 0.4 |
| 판화를 실생활에 활용해 보고 싶다 | 2 | 0.9 |
| 계 | 223 | 100.0 |

<표 30>과 같이 판화 수업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어린이가 26.5%, 재미없어서 별로 하고 싶지 않다 22.4%, 판화는 재미있다 17.0%, 더 재미있게 수업해 줬으면 좋겠다 12.1%, 판화 할 때 너무 어려웠다 5.4%, 여러 가지 다양한 판화를 해 보고 싶다 4.9%,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표현하고 싶다 4.5%, 판화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3.1%, 판화재료를 넉넉히 주었으면 좋겠다는 어린이와 판화를 실생활에 활용해 보고 싶다는 어린이가 각각 0.9%, 판화수업을 시간 내에 끝내도록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어린이와 판화를 교실에서 하지 말고 밖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어린이가 각각 0.4%로 나타났다. 따라서, 판화 수업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어린이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새로운 분야에 대하여 호기심이 많고 표현 욕구가 강한 어린이들에게 흥미 있고 효율적인 판화 교육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교사는 갖춰지지 않은 환경이나 여건을 타하기 전에 주어진 여건에서 어느 만큼 최선을 다하여 교육하였는가 되돌아보고, 무한한 어린이들의 가능성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열의를 갖고 노력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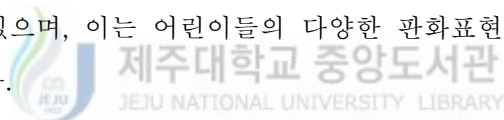
IV. 결 론

초등 미술에서 관화영역은 색다른 체험과 표현 방법을 통하여 미적 정서와 창의성을 길러주며 제작 과정에서 인내심과 협동심을 길러주는 등 종합적인 교육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교육현장에서는 이해와 관심이 극히 부족한 편이다.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현행 교육현장에서의 관화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 현장에서의 관화지도는 그림 그리기에 흥미를 잃은 어린이들이 관화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보이는 등 또 다른 미술교육의 대안으로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관화교육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관화 교과시간이 충분히 확보되고 않고 있다.

교육내용에서도 교사의 적극적인 교수활동의 부족으로 제작방법이 용이한 관화 기법을 선호하고 있으며, 이는 어린이들의 다양한 관화표현 활동에 큰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바람직한 관화지도의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순한 관화활동으로 관화의 기능을 제한 시켜 온 기존의 관화교육에서 탈피해 관화의 다양한 표현기법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관화에 흥미가 높은 어린이들에게 제작방법이 용이한 고무관화나 야채를 이용한 찍기 등의 단순한 활동으로 표현의 다양성을 제한시켜 온 관화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

둘째, 그리기 중심의 교육으로 미술에 흥미를 잃은 어린이들에게 또다른 미술교육의 대안으로써 관화교육이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교사는 전문성 있는 연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교사의 관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관화의 교육적 효과인 조형감과 창의성을 기르기 위하여 어린이들의 표

현욕구를 체계화 할 수 있는 지도 시간의 확충과 학년간의 연계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료와 표현 방법으로 어린이들의 창의적인 표현 욕구를 충족 시켜주기 위하여 관화지도 시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한다. 특히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5학년 미술과에는 관화지도 내용이 없어서 연계적인 학습지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재량활동 시간과 특기·적성교육 시간을 적절히 이용하여 창의적인 표현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시간 확보가 요구된다.

넷째, 관화가 가진 교육적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전문성을 지닌 미술 전담 교사 배치가 시급하다. 초등학교 교사는 10개 교과와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포함하여 주당 수업시간 25시간~32시간을 지도하고 있으며, 제7차 교육과정 운영으로 인하여 단계형과 보충·심화형으로 학습지도를 하고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미술과의 각 분야 별 교재연구가 어려운 실정임으로 전문적인 미술 전담교사 배치가 시급한 형편이다.

다섯째, 관화교육에 필요한 교구를 구비하여야 하고, 미술실이 확보되도록 행정적인 배려가 우선 되어야한다. 미술실이 없는 학교가 조사 대상의 73.1%를 차지하고 있다. 관화는 다른 미술영역보다 오염도가 높으므로 미술실이 꼭 필요로 한다.

여섯째, 내실 있는 관화교육을 위해서 교사의 교재연구 시간 확보 및 잡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교사는 교재 연구 및 수업 설계를 위한 경험적 연수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 업무처리로 인하여 수업지도를 위한 교재연구 시간이 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일곱째, 관화수업은 안정성이 요구되는 활동이므로 학부모 보조교사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과 같이 관화교육에서의 선행요건들이 전제된 바탕 위에 관화에 대한 교사들이 풍부한 발상지도와 충분한 동기부여, 교사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이며 합리적인 지도 등이 뒷받침된다면, 관화교육은 침체된 초등학교 미술교육에 새로운 대안 교육으로서 자리 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구자현(1989), 판화, 미진사.
- (1996), 판화의 이해:개념과 역사, 월간 미술.
- 고충환(1995), 판화의 본질, Mook 판화.
- 곽남신(1994), 목판화와 동판화, 도서출판 예경.
- (1994), 석판화와 실크스크린, 도서출판 예경.
- 곽덕준·김재권(1989), 세계현대판화, 미술공론사.
- 교육부(1999), 「미술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3·4」 한국교육개발원.
- (2002), 「미술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5·6」 한국교육개발원.
- 김봉권(1998), 미술지도 이렇게 하자Ⅴ, 미술공론사.
- 김삼량(1992), 미술 교육 개론, 미진사.
- 김춘일(1985), 어린이 미술론, 미진사.
- (1989), 미술 교육론, 미진사.
- 김정 외(1998), 미술 교육 학원론, 예경.
- E.P.Cohen·R.S.게이너(1966), 어린이 미술교육의 실제, 서울대 미술교육연구회
역, 미진사.
- 로웬펠드·브리테인(1993), 인간을 위한 미술교육, 서울대학교미술교육연구회
옮김, 미진사.
- 박현일(1996), 사고력 발달을 위한 어린이 그림 지도방법론, 생활지혜사.
서승원 감수(1994), 판화미술의 세계, 서치방.
- 손기환(1992), 미술이론, 대정도서출판사.
- 오정현(1997), 부모·교사를 위한 아동미술, 형설출판사.
- 윤동천(1998), 현대판화의 위상과 전망, 월간미술.
- 윤명로(1996), 한국현대판화의 형성과 전개, 월간미술.
- 이상남(1996), 미술과 열린 학습의 실제, 도서출판대일.
- 최원식(1991), 교과별 실기지도자료, 한국교육출판.
- 한운성(1989), 판화세계, 미진사.

참고 논문

- 구득환(1985), 일반 미술교육에 있어서의 판화지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남권(1995), 미술과에서 창의력 신장을 위한 판화영역의 다양한 표현방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원.
- 김동영(1986), 국민학교 판화교육의 개선방향, 사향미술교육논총 13권.
- 김정숙(2000), 초등학교 미술교육의 판화지도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상지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진영(1986), 판화교육의 실태 및 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태호(1994), 국민학교 미술교육에서 바람직한 판화지도를 위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재춘(2000), 초등 미술 교육에 있어서 상상화의 주제 및 표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서지원(1995), 판화의 개념변천과 현대판화의 동향,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 이미숙(1999), 바람직한 초등미술교육을 위한 판화영역 분석과 판화의 지도 방법연구, 한국미술교육학회.
- 윤성희(2001), 초등학교 미술감상교육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덕호(1994), 시각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판화지도 방안, 한국초등미술학회.
- 장묘순(1994), 판화의 개념 확산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성신여자대학교.
- 전효인(2000), 초등학교 서예교육의 실태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은휘(1992), 한국현대판화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사향미술교육논총 제3편, 한국초등미술교육학회.

<an extract>

**Research on the Engraving Work
of the Art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²⁰⁾**

Nan Hyang, Ko

Major in Fine Arts Education,
i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Prof. of the adviser : Sung Jin, Park

The engraving work is to cultivate the formative sense and the initiative ideas by the expression of the unique technique. By inspiration of the scientific thought, it will expect the comprehensive effect in the art education, based on the harmonical progression of both the intelligence and emotion.

The subject of this research is the educational meaning, the concept and features, and the principle of the engraving work in the elementary art class through the relevant documents. By examining the actual situation of engraving guidance in elementary school, it is aimed at finding the right direction of the engraving art in the elementary education.

The question research is performed on the 4th, 5th, and 6th grades in Cheju City, who amount to 438. In result, the data is analyzed with the statistical program. The summarized conclusion is as follows.

First, though children tend to take a great interest in the engraving, there is no an educational field to make the best use of the engraving features to express with the various ways.

20) * The present essay is the master's thesis of the Pedagogy and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in Cheju National University, on August, 2002.

Second, as the present art class just follows the existing curriculum, focused only on paintings, there is an urgent need for understanding and attention of the actual field as well as the teachers

Third, the guidance of the engraving art is not sequent of the next and the lesson is short.

Fourth, the activities of the engraving education can't be normally performed because of the lack of facilities and equipments for that class.

Based on the above, it can be suggested the desirable direction of the engraving art in elementary school: as follows.

First, it must be deviated from the existing education to stress only the work to engrave, so as to restrict the various expression, which is the chief feature of the engraving art. On this account, it is required the field to make the most use of the various expression of the engraving art.

Second, teacher is to participate the expert training, for the engraving art is to stand as the new and alternative program for the children, who lost their interest in art class owing to the existing education focused on the paintings.

Third, there are needed to obtain the sufficient lesson and associate among all grades in school, in order to cultivate the formative sense and the initiative idea from the effect of the engraving art. Then, the students can be satisfied and systematized with their desire to express.

Fourth, the exclusive art teacher is an urgent need to maximize the educational effect of the engraving art.

Fifth, it is required to prepare for the equipment for the engraving work and the administrated respect is to give to priority to the art and to provide the schoolroom for the art class.

Sixth, it has to allow teacher to study the relevant textbook and to save the wasted time for the trials, so that the engraving art class will be rich in its contents.

Seventh, as the engraving work requires to the stability, it is desirable to assign the parent assistance.

As mentioned above, there should be preceded by the training of teacher, the pleased environment for the engraving work, the assignment of the lesson, and the associated guidance with all grades in school for the right education of the engraving art.

As a result, the students without self-confidence or interest of the paintings can make their concern of the arts recover, through the various kinds of the expression techniques. Besides, they can work their will to develop their intelligence and emotion with harmony. Furthermore, it will expect the effect of education for the whole man.



<부 록>

설문지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미술 교육 중에서 주로 관화와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분이 답하신 내용은 연구의 자료로만 사용될 뿐 그 외의 다른 목적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답변 하나 하나는 우리 초등학교 미술교육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당되는 것이 여러 개이면 2개 이상 O표를 하여도 되며, 해당되는 것이 없으면 비워 놓으면 됩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지도교수 박 성 진 교수

석사과정 고 난 향



() 초등학교 () 학년 성 별 : 남() 여()

※ 다음 물음에 대하여 해당되는 곳에 O표 하시오.

1. 미술 시간에 대한 여러분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 ① 재미있다() ② 재미없다() ③ 그저 그렇다()

2. 미술 시간이 재미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선생님이 수업을 재미있게 하셔서()
② 원래 미술 시간이 좋아서()
③ 직접 활동하는 것이 좋아서()
④ 선생님이 좋아서()

3. 미술 시간이 재미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선생님의 수업이 재미없어서()
 ②재료 준비가 귀찮고 가져오기 싫어서()
 ③표현능력이 모자라서()
 ④그저 미술 시간이 싫어서()
4. 일주일에 미술 시간이 몇 시간이면 좋겠습니까?
 ① 1시간 정도() ② 2시간 정도()
 ③ 2~3시간 정도() ④ 3시간 이상()
5. 지금까지 미술시간에 가장 많이 경험한 순서대로 번호를 써 주세요.
 ①스케치() ②수채화() ③수묵담채화() ④판화()
 ⑤꾸미기() ⑥만들기() ⑦공예() ⑧포스터()
 ⑨조소() ⑩감상() ⑪미적 체험()
6. 판화를 하면 재미있습니까?
 ①재미있다() ②재미없다() ③그저 그렇다()
7. 판화 수업 지도는 어떻게 받으니까?
 ①교과서 중심으로 설명을 들었다() ②직접 한다()
 ③설명을 듣고 직접 한다() ④설명을 듣고 자료도 이용하여 직접 한다()
 ⑤별로 지도를 받지 못한다()
8. 여러분이 해보았던 판화 중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것은?
 ①고무 판화() ②목판화() ③채소를 자르거나 새겨서 무늬 찍기()
 ④물체를 놓고 찍기() ⑤종이 판화() ⑥탁본()
9. 다색 판화를 한 경우 판을 몇 개 사용합니까?
 ① 2가지() ② 3가지() ③ 4가지() ④ 한 적이 없다()
10. 판화 시간이 다른 미술 시간과 비교해서 재미는 어떻습니까?
 ①아주 재미있다() ②재미있다()
 ③보통이다() ④재미없다()

11. 여러분은 판화 하는 방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 ① 잘 알고 있다() ② 조금은 안다()
③ 해 보았지만 잘 모른다() ④ 잘 모른다()

12. 판화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은?

- ① 꼭 하고 싶다() ② 조금은 하고 싶다()
③ 그저 그렇다() ④ 할 필요를 못 느낀다()

13. 판화 수업 때 무엇을 할 것인지를 어떻게 정하십니까?

- ① 선생님의 소개작품을 보고() ② 교과서 작품을 보고()
③ 친구의 것을 보고() ④ 창의성을 발휘하여()

14. 판화시간 중 가장 어려운 때는 어떤 때입니까?

- ① 표현할 것을 정 할 때() ② 밑그림을 그릴 때()
③ 판을 새길 때() ④ 판을 찍을 때()

15. 판화 시간 중에 이용한 자료를 있는 대로 고르시오.

- ① 비디오자료() ② 웹자료() ③ 궤도()
④ 참고작품() ⑤ 기타()

16. 판화 자료를 구하기가 어떠했습니까?

- ① 쉽다() ② 어렵다() ③ 보통이다()

17. 위 16번에서 판화재료를 구하기 어렵다면 그 이유는?

- ① 재료가 비싸서() ② 구하기 어려워서()
③ 귀찮아서() ④ 그냥 싫어서()

18. 여러분은 판화가 우리 생활 속에서 사용될 수 있다고 봅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③ 모르겠다()

19. 우리 생활 속에서 판화가 사용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에 O표를 하시오.

- ① 카드 찍기() ② 포장지() ③ 표지()
④ 달력() ⑤ 도장() ⑥ 옷의 무늬()

20. 판화 수업을 통한 여러분의 발전은?

- ①감상능력이 늘었다() ②판화 만드는 실력이 늘었다()
③창의력이 발달되었다() ④모르겠다()

21. 학교의 미술실이 유무(있나, 없나)와 그 크기는?

- ①있다 - 교실 한 칸() ②있다 - 교실 두 칸()
③있다 - 교실 반 칸 이하() ④없다()

22. 판화수업에 대하여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써 주십시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